

2022-02

협력연구

#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Demand Analysis of the Performing  
Arts Market:  
Before and After COVID-19

이관영  
김수경  
윤수영  
정인혜  
이다운



#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Demand Analysis of the Performing Arts Market:  
Before and After COVID-19

이관영·김수경·윤수영·정인혜·이다운



## 연구책임

---

이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

---

김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윤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인혜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이다운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임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응한 이동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등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필요한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에 피해가 집중됨
- 코로나19가 공연시장의 공급, 유통, 소비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 자료 필요
- 공연예술분야의 가격과 수요에 관한 거대 데이터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활용하여 공연예술 수요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의 거대한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특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에 따라 수요 특성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함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통해 (1) 코로나19 전후 장르별·지역별 가격과 수요의 동향을 파악하고, (2)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가격과 수요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둠
- 이를 이루기 위해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을 살펴 보는 것과 동시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기초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전후 장르별·지역별 가격 및 수요의 동향을 살펴봄
- 또한, 공연예술분야 수요의 특성을 지역별·장르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요 특성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의 시사점을 제시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의 범위인 국내 공연예술시장 소비(예매)로 함
  - 7개 권역(서울,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7개 장르(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를 대상으로 분석함
- 시간적 범위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데이터 시계열성 확보를 위해 '19년 하반기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며 2022년 상반기 데이터까지를 범위로 함
-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됨
  -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연예술시장 충격을 데이터와 실증연구 중심으로 검토함
  - 둘째, 코로나19 전후 공연예술시장의 관람객 소비(예매) 패턴을 분석하여 코로나19가 공연예술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공연예술수요의 특성을 분석함
  - 셋째, 코로나19가 야기한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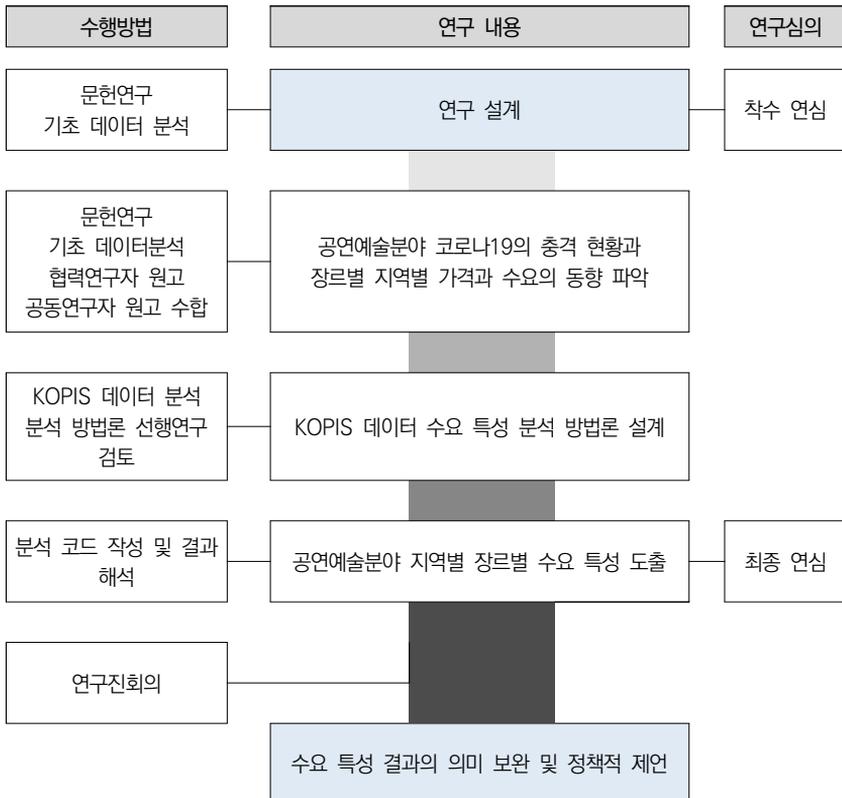
〈표 1〉 연구 범위

연구 범위	내용
공간적 범위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의 범위인 국내 공연예술시장 소비(예매)로 함
시간적 범위	■ '19년 하반기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며 2022년 상반기 데이터까지를 범위로 함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연예술시장 충격 검토</li> <li>■ 코로나19 전후 공연예술시장의 관람객 소비(예매) 특성을 분석하여 공연예술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li> <li>■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li> </ul>

##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방법은 크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과 가격 및 수요 동향 확인, 선행연구 검토(literature review), 데이터 가공 및 분석(data cleaning and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정리해본 후 장르별 수요와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별 수요와 가격의 동향 또한 파악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분석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KOPIS 데이터를 활용한 공연예술 수요 특성 분석 방법론을 설계함
  - 방법론 설계를 바탕으로 분석 코드를 작성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함
  - 연구진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요 특성 결과의 의미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그림 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 2.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충격 현황

### 가.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

#### 1) 코로나19 발생 및 공연예술 분야 환경 변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COVID-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음
- 2022년 11월 22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누적수는 약 2,665만 명(사망자 3만 111명), 전 세계 확진자 누적 현황은 약 6억 9백만 명(사망자는 6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공연 횟수 및 관객수가 거리두기 등 정책으로 인해 급감함
  - 2020년 공연 건수(전체)는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2월을 시작으로 공연 횟수가 감소세를 시작함
  - 2020년 4-6월 기간 동안 서울과 대구지역 공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이 시기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감소 또는 증가세는 공연 건수와 연관이 나타남.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할 경우, 감소세가 나타나는 해당 월에서 다음 월로 이어지는 기간에 공연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가 시작되면서 약 40일 동안 코로나 환자가 급증(8,571명)하여 코로나 대유행 1기 시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함. 이 시기 9월 공연 횟수는 7-8월 대비 하락세를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공연의 제한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공연문화'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연예술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랜선 공연' 확대의 확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비대면 공연 서비스를 통해 공연예술을 이어감
  - 기존에는 라이브 무대와 현장 관객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집단 상영하는 형태로 공연 영상화가 추진되었다면, 코로나19는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멀어지

면서부터는 영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공연의 비중이 한층 높아짐

## 2) 코로나19 방지 정부정책 시행과 공연예술 환경 변화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여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2월 29일 첫 도입됨.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 22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4월 20일), 생활 속 거리두기(2020년 5월 5일), 5단계 체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11월 7일), 4단계 체제 사회적 거리두기(2021년 7월 1일)를 거쳐 2022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임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 지침 등은 공연 취소로 이어짐
  - 국공립 문화시설의 경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거의 대부분이 휴관에 돌입함
  - 2022년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야 제한적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5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운영 중단 결정에 따라 다시 휴관에 들어감
- (2021년)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단계별 수칙에 따라 좌석 띄우기가 적용됨
  - 2021년 7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실질적으로 22시 이후의 공연이 중단된 한편,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됨
  -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사가 전면 연기 또는 취소가 되는 가운데, 예술단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회함
-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공연장의 운영 시간 등에 변화가 생김. 2021년 10월 18일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었으나, 단계

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수칙이 완화됨

-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별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됨
  - 생업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차 개편으로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2차 개편으로 대규모 행사 → 3차 개편으로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됨. 개편(안)에 따라 유흥시설 제외한 공연장의 시간제한은 1차 개편으로 해제됨
  -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함. 공연장은 22시까지로 운영 시간제한이 다시 추진되었고, 300명 이상의 행사(비정규공연장)는 종전과 같이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는 승인하지 않음
-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022년 11월 현재, 실내 공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공연장에 대한 이용 제한 등은 없어짐

### 3) 공연예술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한 변화

- 문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20일, 연극 및 뮤지컬 등의 공연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용자 지원 등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함
  - 2020년 예술인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용자 71억 원 규모(1천90명)를 신설, 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58억 원을 지원함
  - 창작자금 지원으로는 공연장 대관료(61억 원, 1천 건), 공연 초연·재공연(152억 원, 1천 19건), 온라인 생중계(4억 원, 26건) 제작비 등을 집행함
  -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공연예술 현장인력(3천명) 및 공연장 방역(500명) 일 자리 지원에 319억원을 배정함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기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
- 정부의 공연예술 분야 지원 정책은 대부분 예술인 지원, 공급자 측면에 치중되어 복

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성격이 큼.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이 수요자 측면의 지원이지만, 이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공급자의 수치 보전이 목적이므로 8,000원 정도의 할인으로 수준급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정책대응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피해 완화와 소득 확충에 일정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됨
  -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의 부재 및 현장과의 쌍방향적 소통의 미흡
  - 경직적·일괄적 문화시설 운영 정책
  - 정책수단의 시의성과 적실성 논란, 소액다건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 완성도 높은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위한 제반 조건에 대한 고려 미흡
  -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타 부처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의 증명 곤란, 용자상환 부담 등

## 나. 공연예술분야 가격과 수요 동향

### 1)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티켓 가격 동향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3분기 평균 티켓가격을 살펴보면, 2020년이 44,489원으로 4개년 중 가장 높은 티켓가격을 보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발로, 대다수의 공연이 개막 및 상연을 중단하였고, 그나마 공연을 이어갔던 작품들은 수요가 보장된 대극장 대형작품들이었기 때문에 평균 티켓가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유추됨
  - 2022년에는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낮은 티켓가격을 보였으나 장르 내 다소간의 편차가 존재하였음. 예로 연극과 무용, 국악 장르는 전년 동기 대비 티켓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뮤지컬과 클래식, 복합 장르는 최소 4%에서 최대 30%까지 감소하였음
  - 연극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11,201원에서 2020년 16,44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13,54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기량 하락하였음. 2022년에는 15,223원으로 다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임

- 뮤지컬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26,293원에서 2020년 61,69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9%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1년 56,195원, 2022년 53,981원으로 점진적 감소세를 보였음
- 클래식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12,205원에서 2020년 15,86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32,050원으로 약 102% 가량 추가 증가하며 전 장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공히 지속 증가하던 클래식 장르 티켓가격은 2022년에 접어들며 주춤하였는데 2022년 티켓가격은 22,545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가량 감소한 수치임

〈표 2〉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티켓가격(원)

장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평균	25,426	44,489	41,094	37,572
연극	11,201	16,448	13,543	15,223
뮤지컬	36,293	61,698	56,195	53,981
클래식	12,205	15,869	32,050	22,545
무용	23,397	25,715	15,987	22,132
국악	5,931	11,764	7,926	10,733
복합	8,686	10,730	8,036	6,760

\* 전체 평균은 당해 연도 전체 티켓판매액 ÷ 전체 티켓판매수로 산출한 값으로 각 장르 별 티켓가격의 평균값이 아님

## 2)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공연 수요 동향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공연 관람객수는 약 274만명이었으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92만명으로 약 67% 가량 급감함. 2021년 176만명으로 증가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함. 반면, 2022년 관람객수 375만명을 달성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연극 장르 관람객수는 2019년 69만명에서 2020년 22만명으로 약 68% 감소하였으나, 2021년 33만명으로까지 회복되었으며, 2022년에는 82만명으로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약 20% 가량 높은 수치를 자랑함
  - 뮤지컬 장르는 전 장르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보유한 장르로, 2019년에는 139만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2020년에는 57만명의 관객만이 공연

장을 찾았음. 202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4% 가량 증가하며 99만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많은 204만명의 관객이 뮤지컬을 관람하였음

- 클래식 장르의 2019년 관람객수는 41만명으로 전 장르에서 세번째로 수요가 높은 장르였으나 2020년 예외없이 약 74% 감소하며 57만명의 관객만이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였음. 2021년에는 34만명의 관객이 공연장으로 돌아오며 219%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63만명의 관람객을 확보하며 역시나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자랑함

〈표 3〉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2,743,304	917,504	1,761,862	3,754,448
연극	686,594	218,461	332,015	822,311
뮤지컬	1,389,823	569,307	993,052	2,044,498
클래식	411,225	107,235	341,581	634,828
무용	116,386	10,189	49,187	116,696
국악	62,244	4,773	29,636	92,132
복합	77,032	7,539	16,391	43,983

### 3)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티켓 가격 동향

-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전체의 티켓 1매당 평균 가격은 37,572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티켓가격은 25,426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44,489원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 41,094원으로 감소함
  - 서울의 티켓가격은 2019년 28,498원에서 2020년 47,144원(전년대비 65%)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46,769원과 2022년 44,480원으로 감소함
  - 부산의 티켓가격은 2019년 20,100원에서 2020년 17,667원으로 약 12% 감소하였다가 2021년 38,372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27,769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7,669원 비싼 것으로 나타남
  - 대구의 티켓가격은 2019년 20,624원에서 2020년 65,943원으로 약 220% 증가하였다가 2021년 22,030원, 2022년 18,888원까지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1,736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4)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공연 수요 동향

-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수는 총 3,754,448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743,304건보다 약 37% 증가함
  - 서울의 공연수요는 2019년 1,963,248건으로 전체 공연시장의 72%를 차지하였고, 코로나19가 극심해진 2020년 88%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73%, 2022년 67%까지 감소하여 전체 공연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공연수요는 2021년과 2022년 전년대비 각각 124.0%와 123.3%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9.9% 증가함
  - 대구는 2020년 공연수요가 전년대비 76.6% 감소한 후 2021년 전년대비 211.6% 급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코로나19 전후 공연수요를 비교했을 때 2022년이 2019년보다 45.3% 증가함

### 3.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분석

#### 가. 선행연구 검토

- 공연예술분야 관련 연구는 Baumol and Bowen(1965)의 연구 이후에 타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해외문헌에서 공연예술 수요의 특징과 관련한 연구를 다루었으나, 국내는 최근에 들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해외연구는 가격과 수요정보에 기초한 공연예술의 소득탄력성, 대체 및 보완 관계 분석을 통해 공연수요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 같은 공연예술의 지역별 장르별 수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외 공연예술 분야의 가격 및 수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된 수요특징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연예술수요 특징 분석에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함

- 선행연구의 분석모형은 가격과 수요 정보를 이용한 완결수요체계 모형인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 LA/AIDS(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 등을 활용
- 따라서, 본 연구도 일반균형모형이면서 가격과 수요정보를 바탕으로 수요특성 분석과 장르 간 분석이 가능한 AIDS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연시장 수요의 특징을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집·관리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 해당 자료는 분석대상 기간으로 2019년 9월 이후 자료부터 활용가능하며, 총 티켓판매수, 유료 티켓판매수, 공연가격 등을 지역별, 장르별로 수집 및 제공
  - 다만, KOPIS데이터가 연령, 성별 외의 인구통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목적이 우리나라 공연시장에 대한 수요의 특징을 지역별, 장르별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연시장의 특징을 분석함

## 나. 모형 설정

- 본 연구는 Deaton & Muellbauer(1980)이 제시한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을 지역별·장르별로 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Yang & Koo(1994)의 변이 모형인 원산지별 준이상수요체계 모형(Source-differenti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을 활용하여 공연예술수요를 분석함
  - 같은 공연 장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KOPIS 데이터를 지역별·장르별로 재구성하여 주(weekly)단위로 합산하여 분석함
  - KOPIS에 수록되어있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상연한 1만여 건 이상의 공연에서 발생한 6천6백만여 건에 달하는 티켓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함

- 연구에서는 7개 권역(서울,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7개 장르(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를 주(weekly)단위로 재구성하여 총 8,830개의 지역별·장르별·주별 시계열 데이터를 수요특성 분석에 활용함

## 다. 지역별 장르별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 1) 공연예술분야 총지출과 수요의 특성

- (연극) 충청도 지역 연극과 경기도 지역 연극에 대한 지출탄력성은 각각 1.208과 1.089로 서울(0.872)과 경상도(0.741) 지역의 지출탄력성에 비해 탄력적임
  - 즉, 공연예술분야 중 연극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충청도 지역 연극 지출이 1.208%, 경기도 지역 연극이 1.089%, 서울 지역 연극이 0.872%, 경상도 지역 연극 지출이 0.741% 증가함을 의미함
  - 공연예술분야의 성장은 서울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 매출 비중은 적으나 경기도 지역과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의 연극에 대한 성장률은 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임
- (뮤지컬)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의 뮤지컬 장르에 대한 지출탄력성이 서울, 경상도, 전라도에 비해 탄력적으로 분석됨
  - 뮤지컬 장르의 경우 뮤지컬 산업의 성장에 의해 경기도, 충청도 지역이 서울,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비해 성장률의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클래식) 클래식 장르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의 지출탄력성이 1 이상으로 탄력적이었고 서울과 전라도 지역의 경우 탄력성이 1 이하로 나타남
  - 충청도 지역의 경우 지출탄력성이 1.423으로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충청도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지출이 1.423% 상승한다는 의미
  - 서울의 경우는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서울 지역 클래식에 대한 지출은 0.74% 상승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 2) 공연예술분야 가격과 수요의 특성

- (연극) 서울 연극의 경우 자기가격탄력성이  $-0.286$ 으로 가장 비탄력적인 결과라 나왔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인 자기가격탄력성 결과를 보여줌
  - 공연예술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적게 하락하는 특성을 지니며, 연극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의 수요가 가격 변화에 가장 둔감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타 지역의 경우에는 전라도가  $-0.988$ , 충청도가  $-0.933$  등으로 1 이하로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처럼 비탄력적이진 않음
- (뮤지컬) 뮤지컬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뮤지컬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연극 장르의 경우는 서울 지역 수요가 가격에 상당히 둔감하였는데 뮤지컬의 경우는 타 지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둔감도를 보여주고 있음
- (클래식) 클래식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클래식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연극의 경우처럼 서울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수요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 관람객의 클래식 공연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라. 지역별 장르별 공연예술분야 수요의 시기별 특성

### 1) 코로나 기간 공연예술 총지출과 수요의 특성

- (연극)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2022년 9월 30일 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경우, 경기도 지역 연극에 대한 지출탄력성이 타 지역에 비해 탄력적으로 분석됨
  - 공연예술분야 중 연극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경기도 지역 연극 지출이 1.125% 증가함을 의미함
  - 충청도 지역은 0.943으로 코로나19 이전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 전체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1.208에 비해 하락하였음

- (뮤지컬)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이 코로나19 이전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장르에 대한 수요가 총지출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뮤지컬 장르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기만을 분석했을 경우 경기도 지역은 지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상도 지역 수요탄력성은 0.833으로 타지역에 비해 수요가 총지출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클래식) 클래식 장르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지출탄력성이 1 이상으로 탄력적이었고 서울과 전라도 지역은 1 이하로 나타남
  - 충청도 지역의 경우 총지출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율이 1.570으로 코로나19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의 1.423보다 더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됨
  - 서울과 전라도의 경우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각각 0.755%, 0.8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 지역에 비해 총지출 증가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둔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 코로나 기간 공연예술 가격과 수요의 특성

- (연극) 서울 연극의 경우 자기가격탄력성이 -0.259로 가장 비탄력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 결과를 보여줌
  - 서울 지역의 경우 연극의 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연극에 대한 수요가 0.259%만 감소하여 가장 가격에 둔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는 서울 지역 연극 관객의 충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뮤지컬) 뮤지컬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뮤지컬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경상도 지역 뮤지컬의 경우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는 0.743%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로는 충청도 지역이 0.77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기 지역 뮤지컬의 경우는 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1.002로 단위탄력적 특성을 보이며, 비탄력적 특성을 보인 타 지역에 비해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

- (클래식) 클래식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클래식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서울 지역의 클래식 수요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0.34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보다 조금 더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수요가 가격에 상당히 둔감하여, 서울 지역 클래식 공연 가격의 상승이 이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공연예술 총지출과 수요의 특성

- (연극)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6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연극의 경우 충청도 지역의 총지출탄력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 이상으로 총지출에 탄력적으로 반응함
  - 충청도 지역의 경우, 공연예술분야 중 연극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이 지역 연극 지출이 3.804% 증가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가용 가능한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1.208% 상승보다 높은 결과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며, 연극 장르에 대한 회복속도가 충청지역에서 빠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함
  - 대부분 지역에서 총지출에 대한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연극 관람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뮤지컬) 뮤지컬의 경우 경상도 지역 총지출탄력성이 1.154로 총지출 증가에 대해 수요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
  - 뮤지컬의 경우는 데이터 전체 기간 대비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기간 총지출에 대한 수요가 연극의 경우처럼 증가하지는 않았음
  - 소극장 위주인 연극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에 의해 공연 자체가 어려웠던 것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극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이 지속된 뮤지컬 공연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클래식) 클래식의 경우 서울 지역의 총지출탄력성이 1.263으로 총지출 증가에 대해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
  -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서울 지역 클래식에 대한 지출은 1.26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경우의 0.740% 상승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연예술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총지출탄력성의 증가는 클래식 장르 전체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4)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공연예술 가격과 수요의 특성

- (연극)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든 지역에서 연극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양수(positive number)로 일반적 재화가 가지는 특성인 음(negative)의 결과를 보이지 않음
  - 충청도 지역에서는 연극 공연 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공연 수요가 2.05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 결과인 0.933% 감소한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임
  - 이러한 결과는 충청도 지역 2022년 공연 티켓판매수가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실, 즉 공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과 이 지역 티켓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올랐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지역 공연에 대한 보복적 소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뮤지컬) 뮤지컬의 경우도 연극과 마찬가지로 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도 대체적으로 뮤지컬 공연이 이어져 온 서울지역의 경우는 자기가격탄력성이 -0.540으로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됨
  - 서울 지역 뮤지컬 공연 수요의 가격탄력성 -0.540은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 -0.802보다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결과를 보임
  - 즉, 서울 지역에서도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뮤지컬 공연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수요 특성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가 보복적 소비 증가에 의한 일시적 영향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변

화인지는 향후 추가적 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클래식) 클래식의 경우도 앞의 연극과 뮤지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경기도(-0.409), 전라도(-0.733)는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됨
  - 앞의 뮤지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 모두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가격탄력성보다 비탄력적으로 도출됨
  - 클래식의 경우 역시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이 수요 특성에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은 연극과 뮤지컬 장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양(positive)의 결과로 도출되었음

#### 4. 결론

- 공연예술 관람 수요는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통해 일반균형모형인 준이상수요체계 모형 분석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후천적으로 형성되며,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소비를 하게 된다는 이론, 즉 문화예술 상품의 소비가 소비자본에 크게 의존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
  - 소비자본은 인적자본의 한 형태로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지식 혹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소비자본으로 인해 공연예술 관람을 더 증가시킨다는 이론으로 공연예술 소비는 다른 제품 소비에 비해 가격에 영향을 덜 받음 (이은우 2016, 성제환 2012)
  - 따라서,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구상할 때, 가격 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임
  - 본 연구의 자기가격탄력성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연극 장르의 경우 타 지역보다 가격에 더욱 둔감하고, 전라도 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덜 둔감함
  - 즉 정책을 구상할 때에는 지역별·장르별 수요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이 필요함

-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공연예술 총지출 변화에 장르별·지역별로 상이함
  - 연극의 경우는 충청도 지역의 지출탄력성이 1.208로 서울의 지출탄력성 0.872에 비하여 더 큰데, 이는 전체 연극에 대한 총지출이 1% 증가할 때 충청도 지역에서 연극에 대한 지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증가한다는 의미임
  - 이렇게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전체 공연예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성장률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정책 또한 이러한 수요 특성에 맞추어 공연별 및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 대부분의 경우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타 지역 공연예술 관람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서울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연극수요는 서울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음
  - 다시 말해 경기 지역 연극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격 정책이 타 지역 연극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임
- 특정 지역 특정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다른 공연장르 관람 가격 변화에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뮤지컬 수요는 연극이나 클래식 공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서울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흥미로운 결과로는 교차가격탄력성이 음(negative)의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장르간 수요가 서로 보완재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임
  - 즉 서울 지역의 연극 수요는 뮤지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게 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증가하면 연극이나 클래식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 정책적 효과로 인해 연극 수요 증대 효과 뿐 만 아니라 뮤지컬과 클래식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임
- 공연법 개정으로 인해 전산 발권된 공연예술 티켓 판매 데이터가 의무적으로 수집되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가 함유하는 정보의 양은 상당하나 공연법 개정

이후인 2019년 3분기 이후부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가 포함하는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요의 특성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거리두기 등 정책적 공급·수요의 제한 요인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효과 등을 제외한 공연예술 수요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 시계열 데이터가 더 확보된 후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일반균형모형인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을 통한 수요 특성 분석은 시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장르별·지역별 수요와 가격의 서로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에 더 가까운 분석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특성상 지역이나 장르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 또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이렇게 주요 장르를 위주로 분석하고 나머지 장르는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 다시 말해 시·군·구 단위 분석이나 세부 장르별 분석이 필요할 경우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수요 특성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함

〈표 4〉 주요 결과 및 의미

주요 결과	의미와 해석
공연예술관람은 음(negative)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가짐	- 공연예술관람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가격 할인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음
공연예술관람은 대체적으로 가격변화에 수요의 변화가 비탄력적임	- 공연예술관람 수요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가격 할인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공연예술관람 수요의 총지출탄력성이 양(positive)의 결과를 가짐	- 공연에 대한 총지출 증가에 대해 모든 지역별·장르별 공연 수요가 증가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장르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도 공연예술 전체 산업이 성장할 때 퇴행하지 않음을 의미함
공연예술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공연예술관람 수요는 대체로 지역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서울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연극수요는 서울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음 - 경기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지원정책이 타 지역 연극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주요 결과	의미와 해석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지역별로 통계적 유의성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관람 수요는 경우에 따라 다른 장르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li> <li>- 경기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li> </ul>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음(negative)의 결과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간 수요 특성이 서로 보완재의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임</li> <li>- 즉 서울지역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증가하면 연극이나 클래식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li> <li>- 따라서 서울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 지원 정책은 뮤지컬이나 클래식 장르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음</li> </ul>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대상 및 범위	5
2. 연구 방법	6
<b>제2장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충격 현황</b> .....	<b>9</b>
제1절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	11
1. 코로나19와 공연예술 환경 변화	11
2. 코로나19 공연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26
제2절 공연예술분야 가격과 수요 동향	32
1.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티켓 가격·수요 동향	32
2.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티켓 가격·수요 동향	37
제3절 소결	44
<b>제3장 공연예술 분야 수요 특성 분석</b> .....	<b>45</b>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7
1. 선행연구 검토	47
2. 시사점	51
제2절 모형 설정	53
1. 준이상수요체계모형(AIDS Model)	53
2. 분석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54

제3절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57
1.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57
2.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수요의 시기별 특성	64
제4절 소결	72
<b>제4장 결론</b> .....	<b>75</b>
제1절 결과 요약	77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80
<b>참고문헌 / 83</b>	

---

# 표 목차

〈표 1-1〉 연구 범위	6
〈표 2-1〉 2020년 코로나19 감염 현황 및 정부 주요 방역 지침	13
〈표 2-2〉 공연장 연간 공연실적(2019~2021년 기준)	17
〈표 2-3〉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2020년 11월 1일 개편안)	19
〈표 2-4〉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2021년 7월 1일 개편안)	21
〈표 2-5〉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조치 현황	22
〈표 2-6〉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공연장, 2022. 7. 1. 기준)	25
〈표 2-7〉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2020년 2월)	27
〈표 2-8〉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분야 지원 총괄 현황(2020.7.9. 기준)	28
〈표 2-9〉 2022년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지원 정책 사업 현황(2022. 11. 30. 기준)	30
〈표 2-10〉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티켓가격(원)	33
〈표 2-11〉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35
〈표 2-12〉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증감율	36
〈표 2-13〉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지역별 공연시설 현황	38
〈표 2-14〉 2019~2022년 3분기 지역별 티켓가격(원)	40
〈표 2-15〉 2019~2022년 3분기 지역별 공연 티켓판매수(건)	43
〈표 3-1〉 공연예술 수요특징 관련 주요 선행연구	50
〈표 3-2〉 2019 3분기~2022년 3분기 장르별·지역별 지출 비중 기초 통계량	55
〈표 3-3〉 2019 3분기~2022년 3분기 총지출탄력성	58
〈표 3-4〉 2019 3분기~2022년 3분기 자기가격탄력성	60
〈표 3-5〉 연극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	61
〈표 3-6〉 뮤지컬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	62
〈표 3-7〉 클래식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	62
〈표 3-8〉 타 장르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	63
〈표 3-9〉 코로나19 이후 총지출탄력성	65
〈표 3-10〉 코로나19 이후 자기가격탄력성	67
〈표 3-11〉 거리두기 해제 이후 총지출탄력성	68

〈표 3-12〉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기가격탄력성	70
〈표 4-1〉 주요 결과 및 의미	79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7
[그림 2-1] 세계와 한국의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2020.1.20. ~ 2022.11.17.)	14
[그림 2-2] 2018-2020년 상반기 공연 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지역)	15
[그림 2-3] 코로나19 감염 확산 첫 해(2020년) 월별 공연 횟수	16
[그림 2-4] 지원사업 분류별 예술지원 현황	30
[그림 2-5]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티켓판매액 추이	34
[그림 2-6]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추이	36
[그림 2-7]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지역별 공연장 현황	38
[그림 2-8] 2019-2022년 3분기 주요 지역별 티켓가격	40
[그림 2-9] 2019-2022년 3분기 특별·광역시별 티켓판매수	43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공연예술 분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응한 이동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등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필요한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에 피해가 집중됨
  - 특히, 대표적 대면서비스 업종인 공연예술 분야 피해가 심각했음
  - 코로나19가 공연시장의 공급, 유통, 소비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 자료 필요
-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공연법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 발권된 공연예술 티켓 판매 데이터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 공연예술분야의 거대한 가격과 수요 데이터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활용하여 공연예술 수요의 특성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거대한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특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에 따라 수요 특성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통해 (1) 코로나19 전후 장르별·지역별 가격과 수요의 동향을 파악하고, (2)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가격과 수요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
- 이를 이루기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기초 분석을 통한 코로나 19 전후 장르별·지역별 가격 및 수요의 동향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모형을 설정한 후 공연예술분야 수요의 특성을 지역별·장르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요 특성 결과를 도출함
- 마지막장인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의 시사점을 제시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공연법 개정 이후인 2019년 하반기 이후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예술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른 지역별·장르별 수요 특성을 분석함

- 공간적 범위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의 범위인 국내 공연예술시장 소비(예매)로 함
  - 7개 권역(서울,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7개 장르(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를 대상으로 분석함
- 시간적 범위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데이터 시계열성 확보를 위해 '19년 3분기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며 2022년 3분기 데이터까지를 범위로 함
  - KOPIS에 수록되어있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상연한 1만여 건 이상의 공연에서 발생한 6천6백만여 건에 달하는 티켓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함
-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됨
  -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연예술시장 충격을 데이터와 실증연구 중심으로 검토함
  - 둘째, 코로나19 전후 공연예술시장의 관람객 소비(예매) 특성을 분석하여 코로나19가 공연예술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 셋째,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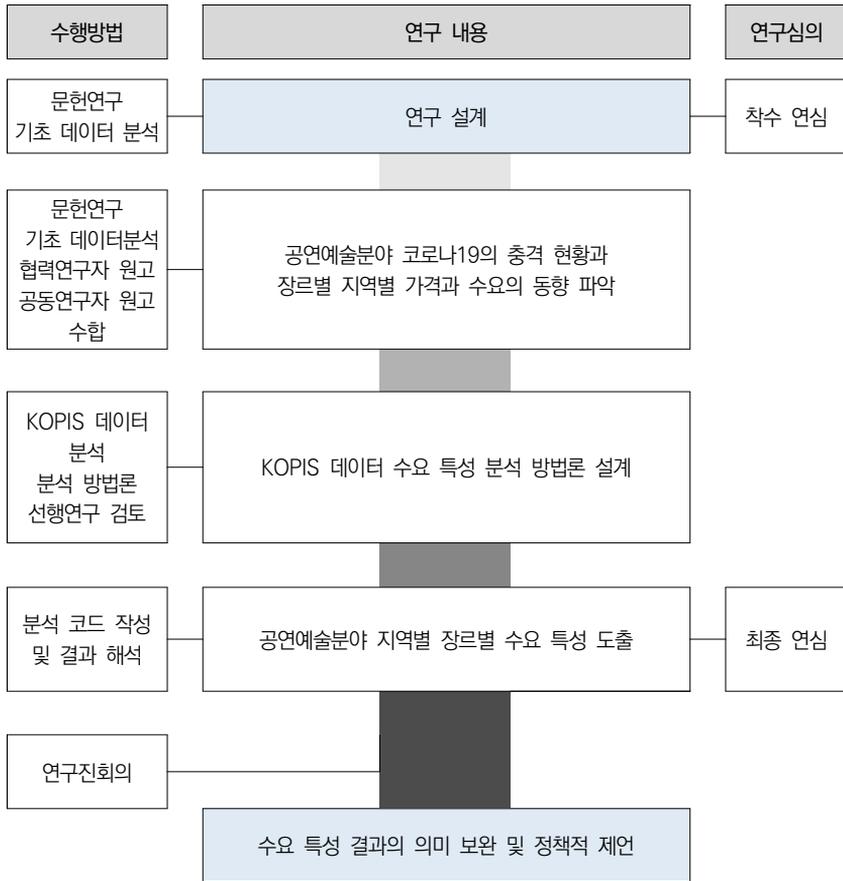
〈표 1-1〉 연구 범위

연구 범위	내용
공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의 범위인 국내 공연예술시장 소비(예매)로 함</li> </ul>
시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하반기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며 2022년 상반기 데이터까지를 범위로 함</li> </ul>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연예술시장 충격 검토</li> <li>■ 코로나19 전후 공연예술시장의 관람객 소비(예매) 특성을 분석하여 공연예술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li> <li>■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li> </ul>

##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방법은 크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과 가격 및 수요 동향 확인, 선행연구 검토(literature review), 데이터 가공 및 분석(data cleaning and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정리해본 후 장르별 수요와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별 수요와 가격의 동향 또한 파악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분석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KOPIS 데이터를 활용한 공연예술 수요 특성 분석 방법론을 설계함
  - 방법론 설계를 바탕으로 분석 코드를 작성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함
  - 연구진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요 특성 결과의 의미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제2장

##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충격 현황



# 제1절 공연예술분야 충격의 현황

---

## 1. 코로나19와 공연예술 환경 변화

### 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연예술 환경 변화

#### 1) 코로나19 국내외 확진자 발생 주요 동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COVID-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Pandemic)”으로 선언함(질병관리청, 2022)
-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해외유입, 중국 우한시) 발생함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2021년 1월 19일까지) 총 73,115명의 확진자와 1,283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코로나19 발생 2년 동안(2022년 1월 19일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70.5만 명(사망자 약 0.65만 명),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3억 2,300만 명 이상(사망자 55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됨
- 2022년 11월 22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누적수는 약 2,665만 명(사망자 3만 111명), 전 세계 확진자 누적 현황은 약 6억 9백만 명(사망자는 6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2) 국내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유행시기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국내 코로나 확진 집합 모임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초 대구광역시

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

-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우리나라 31번째)가 발생함. 2월 20일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105명 중 47명이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대구 지역 확진자 증가는 신천지교회 신자들의 집단 감염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됨

- 질병관리청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위기 정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 이어서 2월 2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도입되었고,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

- 2월 19일에서 3월 2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767명이고, 2월 20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이 시기 사망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됨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에 따라, 지난 1개월 전(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비 확진자 수는 약 1/4분 수준으로 감소함.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하여 이 시기 코로나19로 132명이 사망함

- 2020년 4월 후반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다소 주춤함. 이에, 정부는 5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8월 중순까지 이어짐

- 2020년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의 밀집된 공간과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됨(보건복지부, 2022. 8. 17. 보도자료)

- 이후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부터 10월 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10월 12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함

-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 또한 유지되며,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음식점, 공연장 등의 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함(채수정 외, 2022)

- 2020년 11월 7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기존의 3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적용함. 그러나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 2주 만에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 확산됨에 따라, 11월 17일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11.17)

■ 코로나19 첫 해 감염 현황과 우리 정부의 주요 방역 지침은 <표 2-1>과 같음

<표 2-1> 2020년 코로나19 감염 현황 및 정부 주요 방역 지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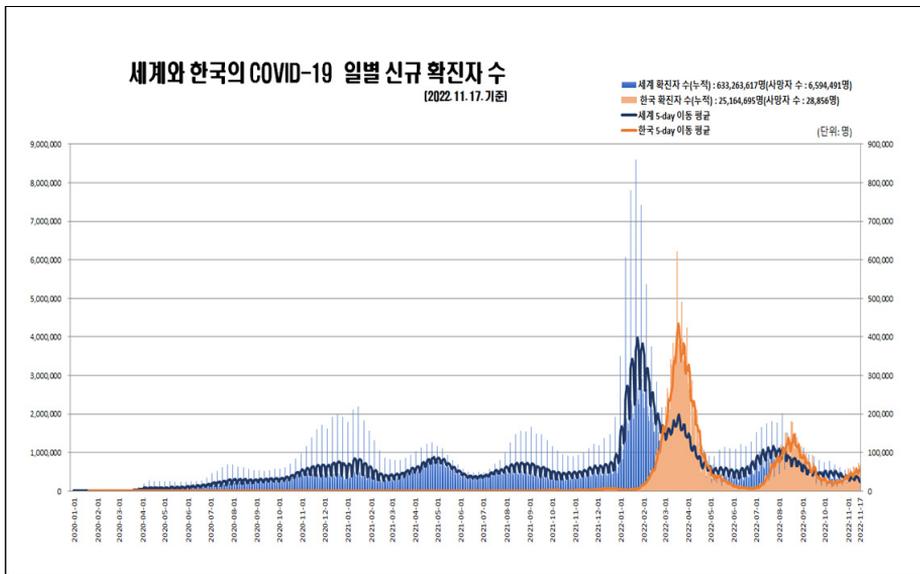
기간	코로나19 감염 현황		정부 주요 방역 지침
	확진자	사망자	
2020. 1. 20. ~ 2020. 1. 27.	4	0	- 해외유입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1.20.) -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1.27.)
2020. 1. 28. ~ 2020. 2. 17.	28	0	- 31번 확진자 발생(2.18.)
2020. 2. 18. ~ 2020. 3. 21.	8,767	102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2.23.) - 사회적 거리두기 첫 도입(2.29.) - WHO 팬데믹 선언(3.11.)
2020. 3. 22. ~ 2020. 4. 19.	1,862	132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020. 4. 20. ~ 2020. 5. 5.	143	20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020. 5. 6. ~ 2020. 8. 15.	4,235	51	- 생활 속 거리두기
2020. 8. 16. ~ 2020. 9. 27.	8,571	96	-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19.)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23.)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30.)
2020. 9. 28. ~ 2020. 10. 11.	995	190	추석 특별방역기간
2020. 10. 12. ~ 2020. 11. 6.	2,589	4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020. 11. 7. ~ 2020. 11. 18.	2,087	20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체계 세분화, 권역별 대응 강화)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적용
2020. 11. 19. ~ 2020. 11. 30.	4,918	30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지역 1.5단계
2020. 12. 1. ~ 2020. 12. 7.	3,953	23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020. 12. 8. ~ 2020. 12. 23.	14,381	190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020. 12. 24. ~ 2020. 12. 31.	8,193	161	-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 및 수도권-비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 2021. 2. 13.까지 지속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문화 · 관광 · 콘텐츠 영향, 11월호, 5쪽

\* 코로나19 감염 현황(확진자 및 사망자 수)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일  
자별 발생(국내발생+해외유입) 및 사망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주요 방역 지침 시기별로 정리

- 2022년 10월 16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한 지 1,000일이 되었고, 그동안 국내 코로나 대유행은 총 6번 찾아온 것으로 분류함
  - 2020년 2월~2021년 2월 기간 내에 총 3차 유행이 있었음. 1차 유행(2020년 2~3월, 인천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2차 유행(2020년 8~9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3차 대유행(2020년 11월~2021년 2월, 전국)
  - 가장 치명적이었던 시기는 2021년 7월 이후 델타 변이 확산기(4차 유행, 전국)와 2022년 1~4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기(5차 유행, 전국)로 볼 수 있음.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기였던 올해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62만여 명까지 나타남. 코로나19의 지속적 변이로 인하여 2022년 7월 이후 6차 유행 시기로 접어들었음
-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가 등장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17일 현재 까지, 세계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세계와 한국의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2020.1.20. ~ 2022.11.17.)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문화 · 관광 · 콘텐츠 영향, 11월호,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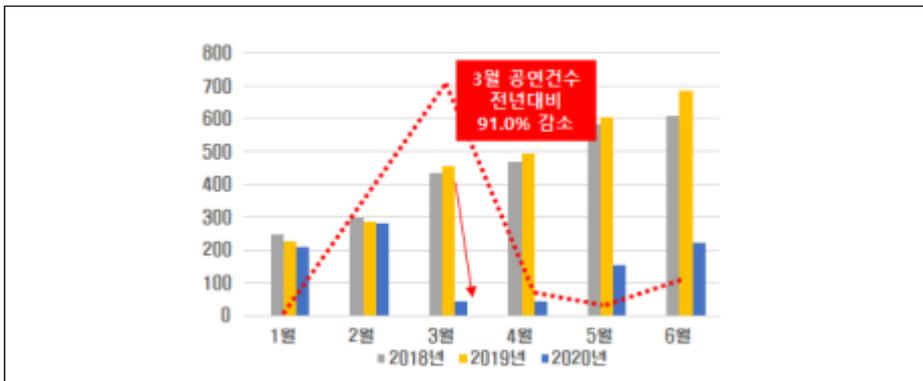
### 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연예술 시장 변화

#### ① 공급자 측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는 국가승인통계 「2020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승인번호 제433001호)」에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문화예술활동의 양적 변화를 파악함
- 2020년 상반기(1~6월) 서울과 대구 지역의 공연건수는 [그림 2-2]에서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3월에 전년대비 91.0% 감소함
- 2020년 공연 건수(전체)는 2월 인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2월을 시작으로 공연 횟수가 감소세를 시작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 2020년 4-6월 기간 동안 서울과 대구지역 공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이 시기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감소 또는 증가세는 공연 건수와 연관성이 나타남.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할 경우, 감소세가 나타나는 해당 월에서 다음 월로 이어지는 기간에 공연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20년 4월 확진자 수(979명)는 3월 확진자 수의 1/7 수준, 5월 확진자 수(703명)는 3월의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함. 6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31명으로 4-5월 대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2-2] 2018-2020년 상반기 공연 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지역)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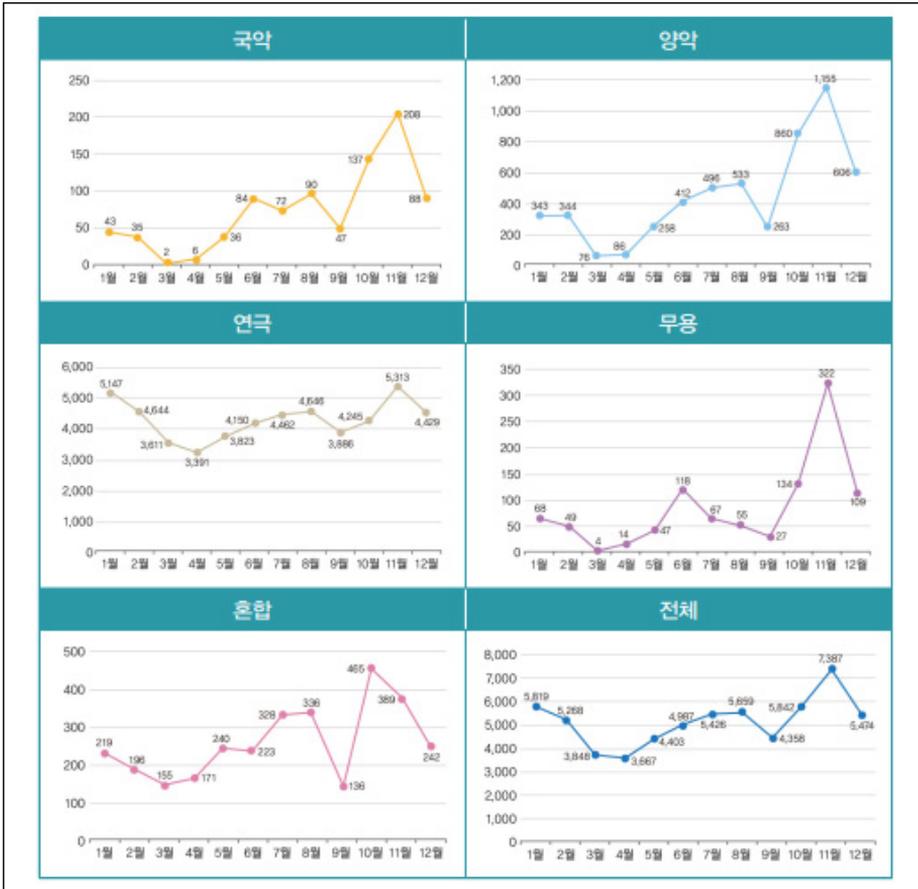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52쪽

\*점선은 2020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 2021 문화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수록된 코로나19 감염 확산 첫 해 월별 공연 횟수는 아래와 [그림 2-3]과 같음

[그림 2-3] 코로나19 감염 확산 첫 해(2020년) 월별 공연 횟수

(단위: 건)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예연감 2021, 165쪽

- 1) 국악 :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세부장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장르), 기타
- 2) 양악 :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세부장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장르), 기타
- 3) 연극 : 연극, 뮤지컬, 복합(세부장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장르), 기타
- 4)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세부장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장르), 기타

- 2020년 1월 전체 공연 횟수는 5,819회를 시작으로 2월에 소폭 감소하여 5,268회로 확인됨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코로나 대유행 1기 시점인 3월 전체 공연

횃수는 3,848회로 2월 대비 36.9% 감소함

-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가 시작되면서 약 40일 동안 코로나 환자가 급증(8,571명)하여 코로나 대유행 1기 시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함. 이 시기 9월 공연 횃수는 7-8월 대비 하락세를 보임

-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해당 월에서 다음 월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공연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표한 1년 주기 통계 「공연예술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3015호)」의 지난 3년 간(2019년~2021년 기준) 주요 결과의 ‘공연장 연간 공연실적’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음
  - 2019~2020년 기준 공연장 연간 공연실적 코로나19 전후 공급자 측면에서(공연건수, 일수, 횃수)에서 확연한 증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2> 공연장 연간 공연실적(2019~2021년 기준)

(단위: 건, 일, 회, 명,%)

구분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횃수		관객수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유료
2019	34,720	26.0	105,938	79.4	138,863	104.1	25,699,838	19,265.2	39.9
2020	14,299	10.8	41,642	31.4	49,356	37.3	6,028,962	4,550.2	45.4
2021	23,386	18.3	60,727	47.4	75,860	59.2	9,604,815	7,497.9	36.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2021, 2022), 공연예술조사 주요 결과(요약), 연구자 재정리

- 2020년은 전체 공연건수는 전년대비 58.8% 감소함.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니나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공연건수가 63.5% 증가함

- 공연건수와 마찬가지로 공연일수나, 횃수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증감세가 이어짐

- 공연 수요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객수에서는 2020년은 전년대비 76.5%가 감소함. 반면, 유료 관객은 전년대비 5.5%p 증가함. 코로나19 초창기 시기에는 여러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는 환경에서, 기존에 무료로 공연을 관람했던 비율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예상됨

- 2020년과 대조적으로 2021년은 전년대비 전체 관객수는 59.3% 증가한 반면, 유료 관객수는 8.4%p 감소함

## ② 수요자 측면

- 공연예술은 대면접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임
  - 공연장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연자와 관객, 공연자 간 또는 관객 간 접촉 등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성이 높은 질병의 확산 위험이 높음
- 이에, 앞서 <표 2-2>에서 코로나19 전후 공연장 관객수를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예술은 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21년 말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19 전 수준의 회복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공연의 제한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공연문화’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랜선 공연’ 등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어, 공간적 제한을 벗어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변화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져, 공공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비대면 공연 서비스를 통해 공연예술을 이어감
  - 세종문화회관이 온라인으로 공연 중계한 ‘힘내라 콘서트’는 코로나19로 공연취소 피해를 입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무관중 온라인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세종문화회관은 이 공연의 제작비용 최대 3,000만 원과 공연장 대관, 중계비용 일체를 지원함(서울연구원, 2021)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남산예술센터,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등 대부분의 공공 문화시설(기관)에서도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공연을 상영함
- 코로나19로 공연예술은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가 가속됨
  - 기존에는 라이브 무대와 현장 관객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집단 상영하는 형태로 공연 영상화가 추진되었다면, 코로나19는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는 영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공연의 비중이 한층 높아짐
  - 무관중 공연을 촬영하거나 공연에 기반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공연의 영역을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감소가 지속되면서 젊은 관객층의 팬덤이 두터운 뮤지컬 분야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공연 영상화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시작함

- 온라인 영상 서비스의 작품이나 배우의 팬덤에 의존 하는 한계가 있으나,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전하게 됨

## 나. 코로나19 방지 정부정책 시행과 공연예술 환경 변화

### 1)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 정책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여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2월 29일 첫 도입됨
  -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 22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4월 20일), 생활 속 거리두기(2020년 5월 5일), 5단계 체제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11월 7일), 4단계 체제 사회적 거리두기(2021년 7월 1일)를 거쳐 2022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임
-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초반 3단계 체제였고, 2020년 11월 1일 <표 2-3>과 같이 5단계로 개편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1.)
  -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됨
  - 개편된 5단계 사회적 거리는 1~3단계 사이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형태로,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변경됨
  -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함

<표 2-3>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2020년 11월 1일 개편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미만	10명 이상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많이 보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모임 ·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11. 1.) 정책뉴스 정리

-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표 2-4>와 같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함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를 최소화 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둠
- 2021년 11월 1일,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위드코로나' 정책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로 전환됨
  - 이에, 기존의 단계별 수칙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10. 29.)
  - 그동안의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거리두기를,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에 주력하는 것으로 집중하기로 함
  - 위드코로나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2022년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함

〈표 2-4〉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2021년 7월 1일 개편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만남 · 친목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동호회 활동 금지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	가족, 직장 외 만남 자제 동호회 활동 금지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1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외출 자제
여행	단체여행 주의·자제	9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5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출장 외 사적여행 자제 장거리이동 자제
행사 · 집회	5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수험생 간 1.5m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출처 : 보건복지부. (2021.6.20.)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서울시 관악구청. (2021.6.24.),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연구자 재정리

- 2022년 1월,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제로 개편 추진함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2022.2.24)
- 정부의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주요 거리두기 조치 현황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정리하면 〈표 2-5〉와 같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용 단계에 따라 영업(운영) 시간, 모임(집회) 인원수 등이 달라졌음
  -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어 왔고, 거리두기의 변화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방역체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이 2020년부터 매월 발표하는 「코로나19의 문화·관광·콘텐츠 영향」의 거리두

## 기 조치 현황을

〈표 2-5〉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조치 현황

날짜	단계변화
'20년	20. 해외유입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27.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2. 18. 31번 확진자 발생
	2. 23.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3. 11. WHO 펜데믹 선언
	3. 22. ~ 4. 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 20. ~ 5. 5.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 6.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8. 16. ~ 8. 18.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 19. ~ 9. 2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 23. ~ 9. 2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 30. ~ 9. 13.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9. 28. ~ 10. 11. 추석 특별방역기간
	10. 1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1. 7.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체계 세분화, 권역별 대응 강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적용
	11. 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지역 1.5단계
	12.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2. 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2. 24. ~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 및 수도권·비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21년	2. 14.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 15. ~ 6. 30.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7. 1. ~ 7. 11.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유지, 비수도권 1단계 (지자체별로 단계기준에 따라 상·하향 조정)
	7. 12. ~ 10. 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유지
	10. 18. ~ 10. 3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유지 연장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시범적 운영기간/일부 지침 완화)

날짜	단계변화	
11. 1. ~ 11. 28.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11. 29. ~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및 추가 방역조치 시행('21.12.6~'22.1.2)	
12. 18. ~ 1.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22년	1. 3. ~ 1. 1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1. 17. ~ 2. 6.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사적모임 전국 6인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 현행과 동일)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2주간 시행(1.20~2.2)
	2. 7. ~ 2. 2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시설 그룹별 이용시간 제한, 사적모임 최대 6인,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 시설 적용 유지 등)
	3. 5. ~ 3. 2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기존 22시)로 완화
	3. 21. ~ 4. 3.	사적모임 인원 소폭조정(6인→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유지
	4. 4. ~ 4. 17.	사적모임 인원 조정(8인→10인), 영업시간 제한(23시→24시) 추가완화
	4. 18.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문화 · 관광 · 콘텐츠 영향, 제11월호, 5쪽

## 2)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공연예술 분야 환경 변화

### ① 2020년 주요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 지침 등은 공연 취소로 이어짐
  - 공연예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중 시설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고 그 통제 기간이 지속되면서 직접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배우와 관련 종사자들의 일상과 생업에 차질이 생김(배해령 외, 2021)
- 2020년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국공립 문화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휴관에 돌입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2.25.)
  -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5개 국립공연장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잠정 중단 발표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2.25.)
- 2020년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야 제한적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5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운영 중

단 결정에 따라 다시 휴관에 들어감(양혜원 외, 2020)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시작되면서 공연장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시작됨
  - 공연장 입장 시, 공연 중에는 관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공연장 내 거리두기는 공공 공연장 또는 공연단체에는 의무화되었고, 민간 공연단체 또는 공연장에도 권고사항으로 제시됨(양혜원 외, 2020)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 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을 제시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명단 작성,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체크와 최근 해외방문 여부 확인 등을 검사함(양혜원 외, 2020)
-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에 서의 제재 조치 위주로 공연장 폐쇄 및 공연 취소 등으로 인해 공연예술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잠정적 휴지기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② 2021~2022년 주요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정, 2021년 8월 주요 내용을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2021)
  - 매뉴얼에서는 감염병 위기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세분화하고 공연 준비, 시행, 철수 등 시기별 대응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단계별 수칙에 따라 좌석 띄우기가 적용됨. 단계별 수칙 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 2021년 7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실질적으로 22시 이후의 공연이 중단된 한편,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됨
  -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공연장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제작사들은

공연 시작 시각을 앞당기거나 인터미션(중간 휴식)을 줄이고, 커튼콜이나 연주자 앙코르는 불가함

-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사가 전면 연기 또는 취소가 되는 가운데, 예술단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선회함

〈표 2-6〉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공연장, 2022. 7. 1.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배치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 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기타	상업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6. 20.),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연구진 재정리

-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공연장의 운영 시간 등에 변화가 생김. 2021년 10월 18일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수칙이 완화됨(보건복지부, 2021.10.15)
  - 그동안 공연장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있었으나, 이 시기를 통해 24시까지 운영이 연장됨
-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별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됨. 이에,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두 차례로 단계적 해제됨
  - 생업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차 개편으로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2차 개편으로 대규모 행사 → 3차 개편으로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됨. 개편(안)에 따라 유흥시설 제외한 공연장의 시간제한은 1차 개편으로 해제됨
  -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함. 공연장은 22시까지로 운영 시간제한이 다시 추진됨

- 300명 이상의 행사(비정규공연장)는 종전과 같이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는 승인하지 않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 해제됨에 따라 2022년 11월 현재, 실내 공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공연장에 대한 이용 제한 등은 없어짐

## 2. 코로나19 공연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 가. 코로나19 초기 공연예술 지원 정책 현황

- 코로나 발생 초기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방역 활동 등으로 대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공연·전시의 취소·연기 사태가 속출하면서 예술계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됨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분야 피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함
- 코로나19 초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 코로나 충격 지원 대책에 집중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20일, 연극 및 뮤지컬 등의 공연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용자 지원 등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용자 지원(총 30억 원 규모),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지원(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 2억 2천만 원 규모), 코로나 19 피해 공연예술단체의 경영 애로 및 법률 상담을 위한 ‘코로나19 전담창구’ 개설(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단체 피해보전 지원(총 21억 원 규모) 등 추진 계획을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 코로나19 초창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분야 정부 지원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지원, 창작 지원, 대관료 지원 등 <표2-7>으로 정리함
  - 2020년 예술인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용자 71억 원 규모(1천90

- 명을 신설, 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58억 원을 지원함
- 창작자금 지원으로는 공연장 대관료(61억 원, 1천 건), 공연 초연·재공연(152억 원, 1천 19건), 온라인 생중계(4억 원, 26건) 제작비 등을 집행함
  -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공연예술 현장인력(3천명) 및 공연장 방역(500명) 일 자리 지원에 319억 원을 배정함

〈표 2-7〉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2020년 2월)

	부처(기관)명	주요 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2020.2.20.)
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자(2020.3.2.)
3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2020.3.2.)
4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2020.2.18.)
5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2020.4.)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 관광지원서비스업(2020.2.19.)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용자(2020.2.13.)
8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용자)(2020.2.13.)
9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2020.2.13.)
10	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2020.2.13.)
11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13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
14	국민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2.24.), 코로나18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 연구진 재정리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기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예산편성,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
  - 2020년 7월 기준, 약 2,5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예산이 투입됨. 이 중 공연예술 분야(문화예술 공통 사업 포함)에 투입된 예산은 1,532.8억 원 규모임
- 정부의 공연예술 분야 지원 정책은 대부분 예술인 지원, 공급자 측면에 치중되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성격이 큼

〈표 2-8〉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분야 지원 총괄 현황(2020.7.9.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주관처	예산
생계·방역 지원	(공동)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응자	예술인복지재단	71
	(공연) 소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3.1
	(공연)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공연장안전지원센터	31
	(공동)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복지재단	360
	(공동)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99
예술활동 지속 여건 조성	(공연) 공연장 대관료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극장협회	60
	(공연)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별 문화재단	153.7
	(공연)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공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9
	(공연)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
	(공연) 청년예술가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
	(공연)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88
	(공동)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
수요진작	(공연) 공연 관람료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130
	(공연) 공연할인쿠폰	예술경영지원센터	29
기타	문예기금 집행 인정범위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예술경영지원센터	-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구축		-
	심리상담 지원대상 확대	예술인복지재단	-
합계			1,532.8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29쪽

\*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 분야 공통 지원 사업 등에 해당되는 예산을 정리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내놓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이 있음(이수영, 2021)
  - 공연 분야 관람 티켓 구매 시 정액 할인권을 지급하여 공연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려 고자 1인당 8,000원씩 최대 2매 할 일은 해주는 것으로, 2021년 5월 18일(1차)부터 2021년 11월 30일(13차)까지 진행됨
-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이 수요자 측면의 지원이지만, 이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공급자의 수지 보전이 목적이므로 8,000원 정도의 할인으로 수준급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수영, 2021)

#### 나. 2021~2022년 공연예술 지원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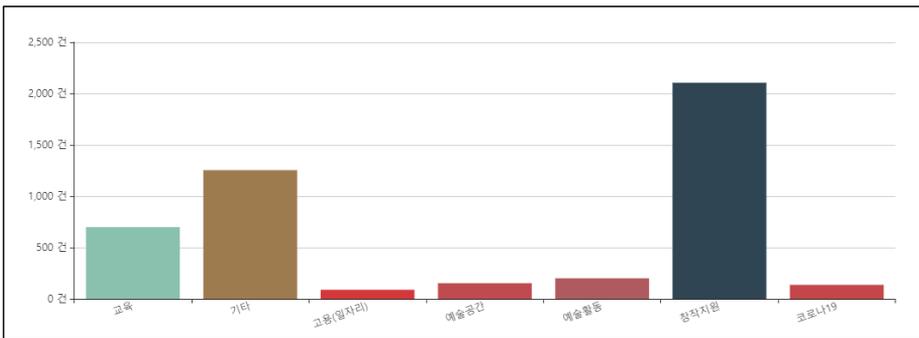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에 대해 고지함(공정거래위원회, 2021.12.13)
  - 5대 공연장(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함
  - 공정위의 해당 불공정 약관조장으로 약관 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 돌려주어야 하며,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을 10~15%로 내리도록 함(공정거래위원회, 2021.12.1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55억 원을 투입해 1,800여개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를 최대 90% 지원하기로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 지원 대상은 등록 공연장에서 대관을 통해 진행되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공연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수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 해당 정책은 문체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그동안 민간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를 연간 20억 원 내외로 지원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2020년 62억 8000만 원, 2021년 55억 원, 2022년 55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려 민간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운영 중

인 '아트누리(www.artnuri.or.kr)'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문화일반 등 예술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

- 아트누리 누리집은 2020년 5월 개설되었던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2020년 12월에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사업 정보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함
- 사업유형별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창작지원', '예술공간', '교육', '고용(일자리)', '국제', '예술활동', '복지', '기타' 등으로도 확인 가능함

- 지원사업 분류별 예술지원에 대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현황은 [그림 2-4]과 같으며, 코로나19 관련된 지원사업은 총 137건으로 확인됨

[그림 2-4] 지원사업 분류별 예술지원 현황



출처 : 아트누리 누리집 '시각화로 보는 예술지원'(https://www.artnuri.or.kr/sb/sb04#n)

- 2022년 11월 현재,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분야 정책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생계지원, 고용지원, 예술활동 지속 여건 조성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2-9> 2022년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 지원 정책 사업 현황(2022. 11. 30. 기준)

구분	사업명	주관처	비고
생계 지원	2022년 코로나19특별용자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1~12월
	2022 서울 예산인 생활안정자금 (재난지원금)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및 하반기 전 세자금대출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상
	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 활동비	대전문화재단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지역예술인 긴급지원

구분	사업명	주관처	비고
고용 지원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 통 분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2년 하반기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 복지원	대전문화재단	인건비, 임대료, 시설 개선비 지 원
예술 활동 지속 여건 조성	2022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경기문화재단	코로나 이후 예술생태계에 대응 을 위한 갭이어 사업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 동지원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광주문화재단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금 지급

출처 : 아트누리 누리집 '지원사업검색'(https://www.artnuri.or.kr) 코로나19 사업, 연구진 정리

- 상기와 같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공연예술인 및 관  
련 단체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들을 발표함
  - 긴급재난지원, 고용안정지원, 예술활동지속여건 조성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정책대응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피해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됨
- 정부의 공연예술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생계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공연예술 지원 정책 사업의 상당수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정도를 정확한 예산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음
  -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의 경우 소액다건(1인당 50만 원~100  
만 원 지원 건의 다수)의 지원사업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술인의 생활안  
정 지원에 있어 지원 예산은 부족한 면이 있음

## 제2절 공연예술분야 가격과 수요 동향

### 1.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티켓 가격·수요 동향

#### 가. 분석 데이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장르를 총 7개로 분류하여 통계 정보를 제공함
  - KOPIS 장르 구분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클래식과 오페라를 통합하여 총 6개의 장르로 기술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는 일 단위로 수집 및 집계되는 데이터로 데이터 추출 시점에 따라 값이 상이할 수 있음
  - 장르별 티켓 가격·수요 동향 부분에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함
- 장르별 티켓가격과 공연 수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르별 티켓 1매당 평균 가격을 티켓 가격으로, 티켓판매 수를 공연 수요로 보았음
  - 장르별 티켓 1매당 평균 가격 = 티켓판매액/티켓판매수
  - 장르별 공연 수요 = 티켓판매 수 = 관람객 수
- 코로나19 전후의 장르별 티켓 1매당 평균 가격과 공연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4개년간의 3분기 데이터를 활용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공연법 제4조가 시행된 2019년 6월 이후로 보고 있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19~'22년 3분기 기간을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공연건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데이터를 참고함

## 나.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티켓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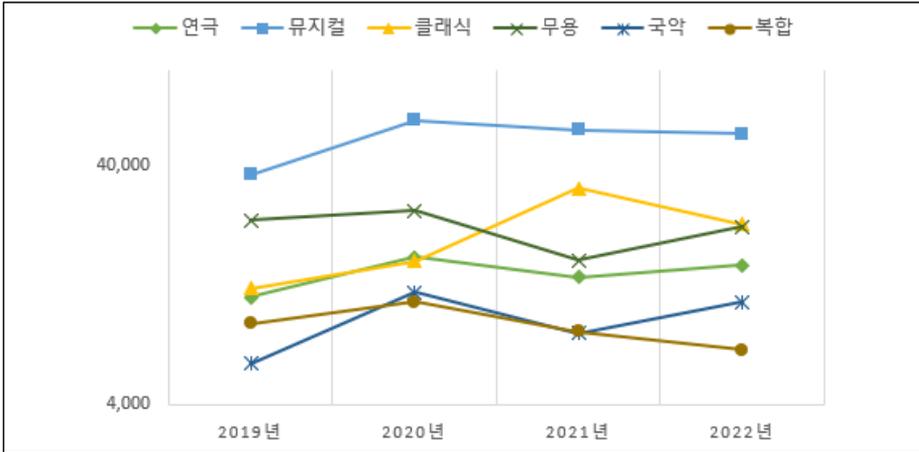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3분기 평균 티켓가격을 살펴보면, 2020년이 44,489 원으로 4개년 중 가장 높은 티켓가격을 보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발로, 대다수의 공연이 개막 및 상연을 중단하였고, 그나마 공연을 이어갔던 작품들은 수요가 보장된 대극장 대형작품들이었기 때문에 평균 티켓가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유추됨
  - 이 중, 평균 티켓가격이 '19년 대비 '20년 가장 크게 증가한 장르는 국악 장르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8% 증가하였음
  - '21년에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티켓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클래식 장르만이 유일하게 약 102% 대폭 상승하였음
  - '22년에는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낮은 티켓가격을 보였으나 장르 내 다소간의 편차가 존재하였음. 예로 연극과 무용, 국악 장르는 전년 동기 대비 티켓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뮤지컬과 클래식, 복합 장르는 최소 4%에서 최대 30%까지 감소하였음

〈표 2-10〉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티켓가격(원)

장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평균	25,426	44,489	41,094	37,572
연극	11,201	16,448	13,543	15,223
뮤지컬	36,293	61,698	56,195	53,981
클래식	12,205	15,869	32,050	22,545
무용	23,397	25,715	15,987	22,132
국악	5,931	11,764	7,926	10,733
복합	8,686	10,730	8,036	6,760

\* 전체 평균은 당해 연도 전체 티켓판매액 ÷ 전체 티켓판매수로 산출한 값으로 각 장르 별 티켓가격의 평균값이 아님

[그림 2-5]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티켓판매액 추이



- 연극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11,201원에서 2020년 16,44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13,54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가량 하락하였음. 2022년에는 15,223원으로 다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임
- 뮤지컬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26,293원에서 2020년 61,69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9%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1년 56,195원, 2022년 53,981원으로 점진적 감소세를 보였음
- 클래식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12,205원에서 2020년 15,86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32,050원으로 약 102% 가량 추가 증가하며 전 장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공히 지속 증가하던 클래식 장르 티켓가격은 2022년에 접어들며 주춤하였는데 2022년 티켓가격은 22,545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가량 감소한 수치임
- 무용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23,397원에서 2020년 25,7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2021년으로 접어들며 약 38%(15,987원) 가량 감소하였음. 반면 2022년 22,13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다시 증가하며 2019~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함
- 국악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5,931원으로 전 장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2020년에 진입하며 11,764원으로 약 98% 가량 증가함. 하지만 2021년 다시 7,926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에는 10,733원으로 다시 만원대로 진입하는 등 등락을 반복함

- 복합 장르의 티켓가격은 2019년 8,686원으로 국악 장르와 함께 다소 저조한 가격대를 형성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만원대 이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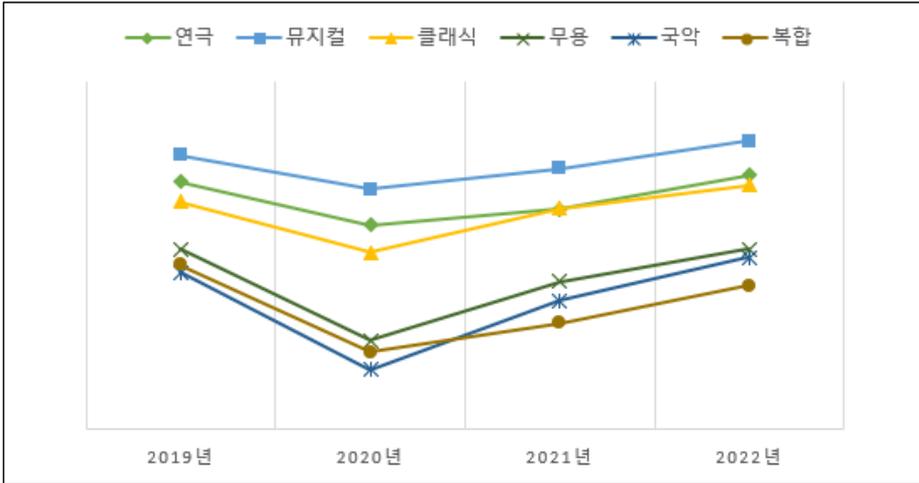
#### 다. 코로나19 전후 장르별 공연수요 동향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공연 관람객수는 약 274만명이었으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92만명으로 약 67% 가량 급감함. 2021년 176만명으로 증가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지는 못함. 반면, 2022년 관람객수 375만명을 달성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따라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공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11〉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2,743,304	917,504	1,761,862	3,754,448
연극	686,594	218,461	332,015	822,311
뮤지컬	1,389,823	569,307	993,052	2,044,498
클래식	411,225	107,235	341,581	634,828
무용	116,386	10,189	49,187	116,696
국악	62,244	4,773	29,636	92,132
복합	77,032	7,539	16,391	43,983

[그림 2-6]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추이



<표 2-12> 2019-2022년 3분기 장르별 관람객수 증감율

티켓판매수	'19년 대비 '20년 증감율	'20년 대비 '21년 증감율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전체	-67%	+92%	+113%
연극	-68%	+52%	+148%
뮤지컬	-59%	+74%	+106%
클래식	-74%	+219%	+86%
무용	-91%	+383%	+137%
국악	-92%	+521%	+211%
복합	-90%	+117%	+168%

- 연극 장르 관람객수는 2019년 69만명에서 2020년 22만명으로 약 68% 감소하였으나, 2021년 33만명으로까지 회복되었으며, 2022년에는 82만명으로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약 20% 가량 높은 수치를 자랑함
- 뮤지컬 장르는 전 장르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보유한 장르로, 2019년에는 139만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2020년에는 57만명의 관객만이 공연장을 찾았음. 202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4% 가량 증가하며 99만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많은 204만명의 관객이 뮤지컬을 관람하였음
- 클래식 장르의 2019년 관람객수는 41만명으로 전 장르에서 세번째로 수요가 높은

장르였으나 2020년 예외없이 약 74% 감소하며 57만명의 관객만이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였음. 2021년에는 34만명의 관객이 공연장으로 돌아오며 219%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63만명의 관람객을 확보하며 역시나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자랑함

- 무용 장르의 2019년 관람객수는 12만명에서 2020년 91% 감소하며 1만명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하지만 2021년 383% 가량 대폭 증가하며 약 5만명의 관객을 확보하였고, 2022년 12만명으로 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상 수준의 관람객을 확보하지는 못함
- 국악 장르의 2019년 관람객수는 6만명으로 전 장르에서 관람객수가 가장 저조하였으며, 2020년에는 5천명 수준으로 전 장르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음. 반면 2021년에는 521% 증가하며 4개년간의 전 장르 실적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9만명의 관람객을 확보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요를 자랑함
- 복합 장르는 2019년 8만명의 관람객을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19를 시작으로 8천명 수준으로 급감함.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명, 4만명으로 관람객수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실정임

## 2.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티켓 가격·수요 동향

### 가. 분석 데이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지역을 17개 시도로 나누어 통계정보를 제공함
  - 행정 구역에 따른 시도별 분류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세종 8개 도시와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9개 도의 공연통계 정보 제공
- 지역별 통계는 공연시설 수, 공연장 수, 공연건 수, 개막편 수, 상연횟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의 기간 설정에 따라 집계와 전체 내 비율로 확인 가능
- 지역별 티켓 가격과 공연 수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티켓 1매당 평균 가격

을 티켓 가격으로, 티켓판매 수를 공연 수요로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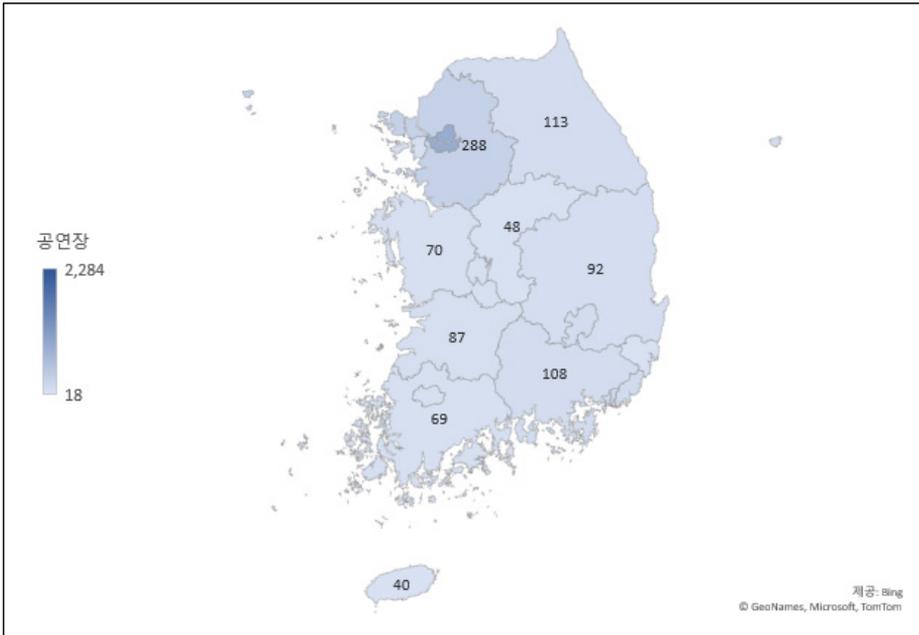
- 지역별 티켓 1매당 평균 가격 = 티켓판매액/티켓판매수
- 지역별 공연 수요 = 티켓판매 수 = 관람객 수

- 그러나 지역별 티켓 가격과 공연 수요를 티켓판매 수와 티켓판매액 기준으로 파악함에 따라 지역 내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티켓가격과 공연 수요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표 2-13〉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지역별 공연시설 현황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원	경남	경북	전북	대전	광주	전남	인천	충남	충북	제주	울산	세종
693	207	102	85	76	68	65	62	53	49	48	48	47	39	33	25	12

[그림 2-7]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지역별 공연장 현황



- 코로나19 전후의 지역별 티켓 1매당 평균 가격과 공연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공연 예술통합전산망(KOPIS) 4개년간의 3분기 데이터를 활용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공연법 제4조가 시행된 2019년 6월 이후로 보고 있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 19~22년 3분기 기간을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공연건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데이터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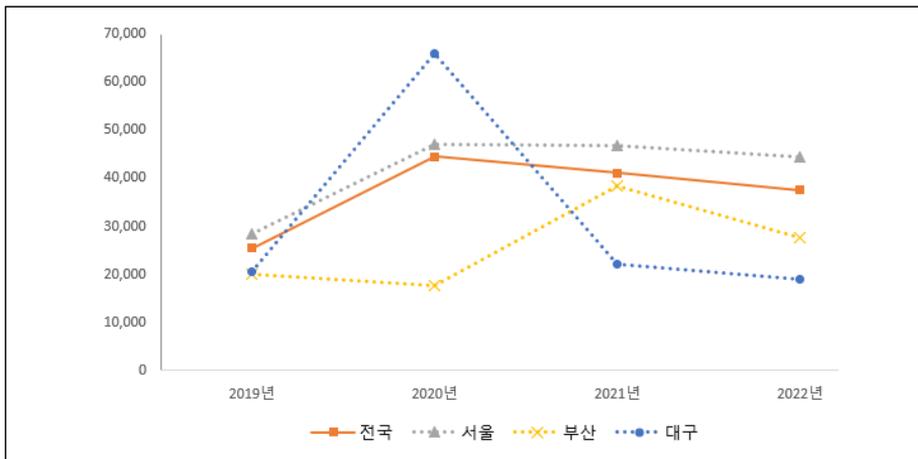
## 나.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티켓가격 동향

-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전체의 티켓 1매당 평균 가격은 37,572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티켓가격은 25,426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44,489원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 41,094원으로 감소함
  - 연도별 티켓가격이 가장 비싼 시도는 인천(2019), 대구(2020년), 충북(2021년), 서울(2022년)이었고, 티켓가격이 가장 저렴한 시도는 세종(2019년, 2020년), 충남(2021년), 제주(2022년)였음
  -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2년 지역별 티켓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증감폭을 나타낸 곳은 세종시(334% 증가)였고, 광주와 제주는 2019년보다 -4%씩 티켓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전과 비교할 때 2022년의 티켓가격이 더 저렴한 지역은 인천(-30%), 강원(-21%), 대구(-8), 광주(-4%), 제주(-4%) 순이었음
- 서울의 티켓가격은 2019년 28,498원에서 2020년 47,144원(전년대비 65%)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46,769원과 2022년 44,480원으로 감소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티켓가격은 전국 티켓가격보다 높았고, 2022년이 전국 티켓가격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6,908원)가 발생함
  -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티켓가격의 증감폭이 극단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서울은 2019년에서 2020년 약 65% 증감한 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함
  - 전체 티켓판매금액의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전국 티켓가격 변화에 서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짐

〈표 2-14〉 2019~2022년 3분기 지역별 티켓가격(원)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25,426	44,489	41,094	37,572
서울	28,498	47,144	46,769	44,480
인천	31,989	9,822	23,910	22,503
대전	16,477	16,407	16,137	33,690
세종	5,277	738	12,809	22,922
부산	20,100	17,667	38,372	27,769
대구	20,624	65,943	22,030	18,888
울산	21,536	9,370	40,763	34,484
광주	13,440	18,354	18,012	12,917
경기	17,040	11,743	28,559	23,375
강원	22,056	26,421	23,842	17,462
충북	24,820	16,307	57,743	34,296
충남	14,941	10,422	9,923	25,064
경북	11,013	6,802	14,610	14,228
경남	17,187	4,166	16,400	22,804
전북	15,371	13,070	20,284	34,117
전남	21,864	4,026	43,819	32,145
제주	12,351	13,907	11,588	11,825

[그림 2-8] 2019~2022년 3분기 주요 지역별 티켓가격



- 부산의 티켓가격은 2019년 20,100원에서 2020년 17,667원으로 약 12% 감소하였다가 2021년 38,372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27,769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7,669원 비싼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티켓가격과 시계열로 비슷한 증감율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와 경북 지역으로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증가한 후 2022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 대구의 티켓가격은 2019년 20,624원에서 2020년 65,943원으로 약 220% 증가하였다가 2021년 22,030원, 2022년 18,888원까지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1,736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2020년 팬데믹과 함께 티켓가격이 급 상승(219.7%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티켓가격이 감소함
  - 대구와 같이 2020년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지역은 서울(65.4% 증가), 광주(36.6% 증가), 강원(19.8% 증가), 제주(12.6% 증가)였음

#### 다.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공연수요 동향

- 2022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수는 총 3,754,448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743,304건보다 약 37% 증가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연수요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공연수요가 가장 많은 4개 도시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순이었고, 도 지역은 경기, 경남, 강원, 경북 순으로,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과 영남권에 서 공연수요가 높았음
  -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2년 지역별 공연수요를 비교해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광주(-98.1%)였고, 가장 적은 감소를 나타낸 지역은 서울(-58.9%)로 나타남
  - 코로나19 전과 비교할 때 2022년의 공연수요가 더 감소한 지역은 제주(-41.0%)와 광주(-13.1%)로 2021년부터 공연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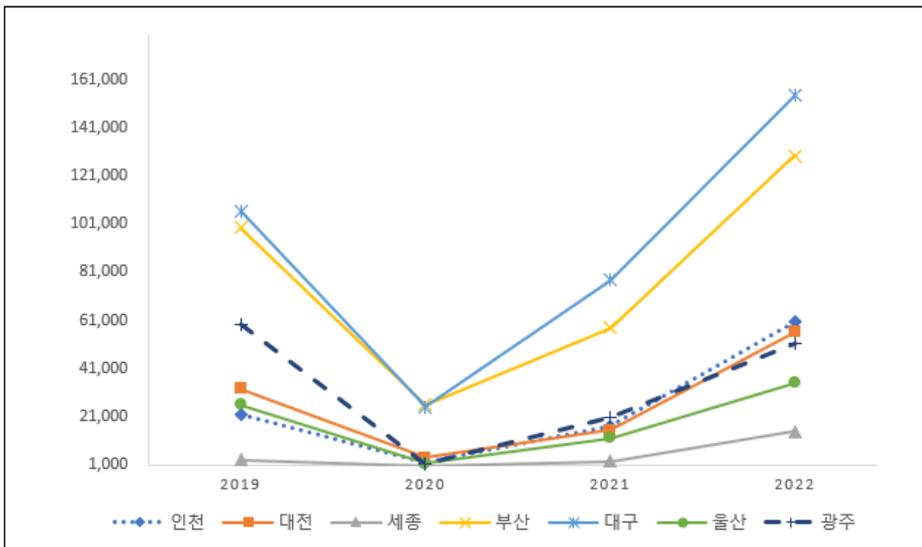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의 공연수요는 2019년 1,963,248건으로 전체 공연시장의 72%를 차지하였고, 코로나19가 극심해진 2020년 88%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73%, 2022년 67%까지 감소하여 전체 공연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공연건수와 공연회수 감소가 티켓판매수에 영향을 주어 서울의 공연수요 집중화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짐
  - 서울의 공연수요는 2021년과 2022년 전년대비 각각 59.6%와 96.5% 상승하여 서울 지역 공연시장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도 공연수요가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공연수요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증감폭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2020년 공연수요가 급감했다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하고 있음
  - 전국에서 공연수요가 가장 적은 세종의 경우, 2022년 가장 높은 증가율(505.9%)을 보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공연수요가 39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공연수요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대구와 부산의 경우, 대구의 공연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산보다 높았으나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공연수요는 부산보다 약 970건 적게 나타남
  - 대구는 2020년 공연수요가 전년대비 76.6% 감소한 후 2021년 전년대비 211.6% 급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코로나19 전후 공연수요를 비교했을 때 2022년이 2019년보다 45.3% 증가함
  - 부산의 공연수요는 2021년과 2022년 전년대비 각각 124.0%와 123.3%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9.9% 증가함

〈표 2-15〉 2019~2022년 3분기 지역별 공연 티켓판매수(건)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2,743,304	917,504	1,761,862	3,754,448
서울	1,963,248	807,288	1,288,456	2,531,659
인천	21,927	1,947	17,245	60,192
대전	32,385	3,785	15,278	56,179
세종	3,009	271	2,441	14,790
부산	99,604	25,878	57,964	129,428
대구	106,337	24,908	77,616	154,455
울산	25,791	1,364	11,954	34,922
광주	59,274	1,101	20,869	51,511
경기	176,454	6,904	127,838	340,806
강원	30,328	6,885	22,844	66,698
충북	10,667	1,108	7,401	21,659
충남	34,320	2,574	15,619	45,214
경북	44,259	7,661	30,910	66,434
경남	25,567	13,400	17,616	67,828
전북	32,715	4,443	18,703	43,851
전남	17,372	3,924	13,025	33,377
제주	60,047	4,063	16,083	35,445

[그림 2-9] 2019~2022년 3분기 특별·광역시별 티켓판매수



## 제3절 소결

---

-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의 충격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정부의 방역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고, 이 기간 동안 장르별 가격과 수요의 동향, 지역별 가격과 수요의 동향을 살펴봄
  -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은 확진자 수가 늘 때, 공연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성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을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2020년 장르별, 지역별 관람객 수가 급감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도 공연예술산업(live performance theater industry)의 시장규모가 2019년 약 69.4억 달러에서 2020년 약 44.0억 달러로 급감함(IBISWorld, February 25 2022)
  - 코로나19 발생 초기를 지난 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연예술 관람객 수도 2021년에는 증가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와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예산편성, 추가경정 예산 활용 등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이러한 지원 사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공연 티켓 구매 시 정액 할인권을 지급하는 등의 수요 진작 정책도 있었음
  - 공연예술 분야의 가격과 수요의 특성을 지역별·장르별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한정된 예산 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있음
  - 다음 장에서는 가용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통해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수요의 특성을 분석해 볼 것임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3장

## 공연예술 분야 수요 특성 분석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 1. 선행연구 검토

- 공연예술분야 관련 연구는 Baumol and Bowen(1965)의 연구 이후에 타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해외문헌에서 공연예술 수요의 특징과 관련한 연구를 다루었으나, 국내는 최근에 들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해외연구는 가격과 수요정보에 기초한 공연예술의 소득탄력성, 대체 및 보완관계 분석을 통해 공연수요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 같은 공연예술의 지역별 장르별 수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외 공연예술 분야의 가격 및 수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된 수요특징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연예술수요 특징 분석에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함

### 가. 국외연구

- Montgomery and Robinson(2006)은 문화 및 스포츠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관람수요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스포츠 관람과 순수예술 관람은 보완관계로 나타났으며, 영화관람은 순수예술과 스포츠 관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 Werck and Heyndels(2007)은 벨기에의 59개 공연장 특성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공연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과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 등을 분석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연 특징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혔으며,

소득(지출)탄력성은 1.7~2.35, 가격탄력성은 -0.15로 나타남

- Zieba(2009)는 독일 178개 공연장 특성에 대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연예술 수요함수를 추정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연수요는 공연가격에 비탄력적이지만 소득에는 탄력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여가시간 개념을 소득에 포함한 총 소득탄력성은 5.65로 여가시간이 공연 수요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밝힘
- Pawlowski and Breuer(2012)는 독일의 가계소비자료를 활용해 15개 레저서비스별 소득탄력성을 분석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레저서비스는 모두 소득탄력성이 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박물관 관람, 오페라 관람 등의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남
- Wu et al.(2018)은 1995년부터 2015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전통 오페라 수요와 타 분야 공연간의 대체관계를 분석함
  - 분석결과, 중국 전통 오페라와 서양오페라, 댄스공연, 음악 공연 간 대체 및 보완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연품질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음
- 위의 연구들은 단일 또는 축약형(reduced form)모형을 활용하여 공연예술 수요를 분석한 연구들로, 위의 분석방법 외에 미시소비자이론(micro economic theory)에 기초하여 일반성을 갖춘 완결수요체계(complete demand system)를 활용한 연구들도 존재함
  - 아래에서는 완결수요체계를 활용한 분석모형으로 공연예술분야 수요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검토함
- Prieto-Rodriguez et al.(2005)는 완결수요모형인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을 이용하여 스페인 문화서비스 수요를 분석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화, 공연, 전시관람과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소득탄력성은 1.75로 나타났으며, 신문, 서적, 잡지 등과 같은 종이매체는 1.37, 음반, DVD 등 음악관련 매체 소비는 1.24로 나타남
  - 문화예술과 음악관련 매체는 대체관계가 있었으며, 문화예술분야와 종이매체 간에는 보완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 Ringstad and Løyland (2011)은 완결수요모형인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으로 1986년에서 2002년까지의 노르웨이 가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연, 영화, AV media의 수요를 분석함
  - 이들은 공연관람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영화관람은 소득변화에 민감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공연과 영화관람은 가격탄력성이 낮게 나타나 가격민감도가 낮음을 보임
  - 다만, 공연과 같은 문화미디어(cultural-media)와 공연 및 영화 관람은 대체관계가 있었으며, 공연관람은 스포츠 관람과 AV-media소비와 보완관계가 나타남

## 나. 국내연구

-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또는 공연예술분야 수요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축약형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되었으나, 몇몇 연구는 완결수요체계를 활용한 연구가 존재함
- 먼저, 이진면·최용재(2011)는 완결수요모형인 LA/AIDS모형으로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수요를 분석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서비스는 타 분야 서비스에 비해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공연서비스, 문화시설서비스, 기타서비스는 상호 보완관계가 나타났고, 오락운동서비스는 공연서비스, 문화시설서비스, 기타서비스와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Lee and Lee(2012)는 AIDS모형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문화내구재간 대체 및 보완관계를 분석함
  - 문화서비스와 문화서비스내구재는 통신서비스와 대체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
- Yoon and Heo(2017)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QUAIDS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문화서비스 수요를 추정함

- 우리나라 문화서비스의 수요탄력성은 1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탄력성이 소득탄력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 및 오락과 공연 및 영화는 상호 보완관계가 나타났으나, 방송 및 콘텐츠와 공연 및 영화는 상호 대체관계가 나타남

〈표 3-1〉 공연예술 수요특징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저자	분석자료	분석모형	분석결과
국외	Montgomery and Robinson(2006)	미국 가계동향조사	MLE	·스포츠관람과 순수예술관람은 보완관계가 나타났으며, 영화관람은 순수예술과 스포츠 관람을 대체함
	Werck and Heyndels(2007)	벨기에 공연장 패널자료	패널고정효과모형	·공연특징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소득탄력성은 1.7~2.35, 가격탄력성은 -0.15
	Zieba(2009)	독일 공연장 패널자료	패널고정효과모형	·공연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나 소득에는 탄력적이며 여가시간이 공연수요에 중요함
	Pawlowski and Breuer(2012)	독일 가계동향조사	Type1,2 Tobit모형	·레저서비스는 소득탄력성이 1이상이며, 박물관, 오페라 관람등의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남
	Wu et al.(2018)	중국공연수요 및 산업 시계열 자료	OLS	·중국 전통오페라와 서양오페라, 댄스공연, 음악 공연간 대체 및 보완관계 없음
	Prieto-Rodriguez et al.(2005)	스페인 가계동향조사	AIDS	·영화, 공연, 전시관람 소득탄력성 1.75 ·신문, 서적, 잡지 소득탄력성 1.37 ·음반, DVD 등 음악관련 매체 1.24 ·문화예술과 음악관련매체는 대체관계이며 문화예술과 종이매체 간 보완관계
	Ringstad and Løyland (2011)	노르웨이 가계동향조사	QUAIDS	·공연관람은 소득 민감도가 높으나 영화관람은 민감도가 높지 않음 ·공연과 영화관람은 가격탄력성이 낮음 ·문화미디어와 공연 및 영화 관람은 대체관계이며, 공연관람은 스포츠, AV-media소비와 보완관계
국내	이진면·최용재 (2011)	가계동향조사	LA/AIDS	·문화서비스는 소득 및 가격탄력성이 타 분야에 비해 높음 ·공연서비스, 문화시설서비스, 기타서비스는 상호보완관계 ·오락운동서비스는 공연서비스, 문화시설서비스, 기타서비스와 대체관계
	Lee and Lee(2012)	가계동향조사	AIDS	·문화서비스와 문화서비스내구재는 통신서비스와 대체관계

구분	저자	분석자료	분석모형	분석결과
	Yoon and Heo(2017)	가계동향조사	QUAIDS	·문화서비스 수요탄력성은 10이상 ·가격탄력성에 비해 높은 소득탄력성 ·스포츠 및 오락과 공연 및 영화는 보완관계 ·방송 및 콘텐츠와 공연 및 영화는 대체관계

## 2. 시사점

- 선행연구의 분석모형은 가격과 수요 정보를 이용한 완결수요체계 모형인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 LA/AIDS(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 등을 활용
  - 위의 모형은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이를 활용하면 경제학의 미시소비자이론(microeconomics consumer theory)에 부합하는 공연예술의 장르별 및 지역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이외에 축약형 모형인 패널고정효과모형, SUR모형
- 따라서, 본 연구도 일반균형모형이면서 가격과 수요정보를 바탕으로 수요특성 분석과 장르 간 분석이 가능한 AIDS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연시장 수요의 특징을 분석함
-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문화예술분야 수요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는 주로 가계의 소비지출항목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와 제한적으로 국가별 공연수요에 대한 패널자료를 활용함
- 국내외적으로 공연예술분야가 공연예술 분야 분석에 특화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제한적으로 나마 독일, 벨기에 등 몇몇 국가에서 공연장 자료를 이용해 공연예술수요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함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개별 공연에 대한 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 index)의 공연 가격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연예술분야

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치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공연예술분야 수요의 지역별, 장르별 수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의 공연소비지출 금액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활용은 해당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자료로서 한계를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집·관리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 해당 자료는 분석대상 기간으로 2019년 9월 이후 자료부터 활용가능하며, 총 티켓판매수, 유료 티켓판매수, 공연가격 등을 지역별, 장르별로 수집 및 제공
  - 다만, KOPIS데이터가 연령, 성별 외의 인구통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목적이 우리나라 공연시장에 대한 수요의 특징을 지역별, 장르별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연시장의 특징을 분석함

## 제2절 모형 설정

### 1. 준이상수요체계모형(AIDS Model)

- 본 연구는 Deaton & Muellbauer(1980)가 제시한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을 지역별·장르별로 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Yang & Koo(1994)의 변이 모형인 원산지별 준이상수요체계 모형(Source-differenti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을 활용하여 공연예술수요를 분석함

- 같은 공연 장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모형의 수식은 아래와 같음

$$w_{i_h} = \alpha_{i_h} + \sum_k \gamma_{i_h k} \ln(p_{i_k}) + \sum_{j \neq k} \gamma_{i_h j} \ln(p_j) + \beta_{i_h} \ln\left(\frac{E}{P}\right) \quad (\text{식 1})$$

- $w_{i_h}$ 는 공연장르 i의 h지역 전체 공연지출에 대한 비중이고,  $\alpha_{i_h}$ 는 로그가격들과 실질 지출이 0인 경우 공연장르 i의 h지역 추정 지출 비중,  $p_{i_k}$ 는 공연장르 i의 k지역 가격,  $p_j$ 는 공연장르 j의 가격,  $\ln P$ 는 스톤가격지수(Stone's price index,  $\ln P = \sum_i \sum_h w_{i_h} \ln p_{i_h}$ )임

- 준이상수요체계모형을 통해 지출탄력성 (expenditure elasticity of demand), 자기가격탄력성 (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교차탄력성 (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을 계산하여 공연예술의 수요특성을 분석함
- 각각의 탄력성은 수식을 통해 계산되며, 세부 수식은 아래와 같음

$$\epsilon_{i_h i_h} = -1 + \frac{\gamma_{i_h h}}{w_{i_h}} - \beta_{i_h} \quad (\text{식 2})$$

$$\epsilon_{i_h i_k} = \frac{\gamma_{i_h k}}{w_{i_h}} - \beta_{i_h} \left( \frac{w_{i_k}}{w_{i_h}} \right) \quad (\text{식 3})$$

$$\epsilon_{i_h j} = \frac{\gamma_{i_h j}}{w_{i_h}} - \beta_{i_h} \left( \frac{w_j}{w_{i_h}} \right) \quad (\text{식 4})$$

$$\epsilon_{i_h} = 1 + \frac{\beta_{i_h}}{w_{i_h}} \quad (\text{식 5})$$

- (식2)는 자기가격탄력성을, (식3)은 다른 지역의 같은 공연 장르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을, (식4)는 다른 공연 장르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을, 마지막 (식5)는 h 지역의 i 공연 장르에 대한 총지출탄력성을 나타내며,  $w_j$ 는 공연장르 j의 전체 공연지출에 대한 비중임

## 2. 분석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은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집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공연법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 발권된 공연예술 티켓 판매 데이터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 문화예술 수요 혹은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데이터의 부재임을 감안할 때, KOPIS 데이터는 공연예술 분야의 우수한 실증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본 연구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 KOPIS 데이터를 지역별·장르별로 재구성하여 주(weekly)단위로 합산하여 분석함
- KOPIS에 수록되어있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상연한 1만여 건 이상의 공연에서 발생한 6천6백만여 건에 달하는 티켓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함
  - 연구에서는 7개 권역(서울,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7개 장르(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를 170개 주(weekly) 단위로 재구성하여 총 8,830개의 지역별·장르별·주별 시계열 데이터를 수요특성 분석에 활용함
  - 공연예술 장르별·지역별 지출(매출) 비중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음
  - 2019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지역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략 연극이 10%, 뮤지컬이 78%, 클래식이 8%, 그 외 장르가 4%를 차지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분석 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모든 장르에서 지출 비중이 가장 큼. 그 중 서울 지역 뮤지컬 지출은 전체 공연예술 지출의 66%를 차지함
  - 연극의 경우도 서울 지역의 비중이 8%로 가장 컸고, 클래식의 경우도 서울의 지출 비중이 6%로 가장 컸음
  - 그 외 장르로 묶어 분석한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장르의 총 지출 비중은 4%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장르의 비중보다 작았음

〈표 3-2〉 2019 3분기-2022년 3분기 장르별·지역별 지출 비중 기초 통계량

장르	지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극	경기도	0.00	0.00	0.00	0.02
	경상도	0.01	0.01	0.00	0.05
	서울	0.08	0.04	0.03	0.21
	전라도	0.00	0.00	0.00	0.01
	충청도	0.00	0.00	0.00	0.01
	외 지역	0.00	0.00	0.00	0.01
	<b>연극전체</b>	<b>0.10</b>	<b>0.04</b>	<b>0.04</b>	<b>0.21</b>
뮤지컬	경기도	0.03	0.03	0.00	0.14
	경상도	0.06	0.07	0.00	0.29
	서울	0.66	0.13	0.27	0.94
	전라도	0.01	0.02	0.00	0.13
	충청도	0.01	0.02	0.00	0.12

장르	지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외 지역	0.01	0.03	0.00	0.32
	<b>뮤지컬전체</b>	<b>0.78</b>	<b>0.08</b>	<b>0.50</b>	<b>0.94</b>
클래식	경기도	0.01	0.01	0.00	0.08
	경상도	0.01	0.01	0.00	0.08
	서울	0.06	0.05	0.00	0.35
	전라도	0.00	0.01	0.00	0.04
	충청도	0.00	0.01	0.00	0.04
	외 지역	0.00	0.00	0.00	0.02
	<b>클래식전체</b>	<b>0.08</b>	<b>0.06</b>	<b>0.00</b>	<b>0.36</b>
<b>그 외 장르</b>		<b>0.04</b>	<b>0.03</b>	<b>0.00</b>	<b>0.19</b>

## 제3절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 1.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분야 수요 특성

#### 가. 공연예술분야 총지출과 수요의 특성

##### 1) 연극 총지출과 수요 특성

- 충청도 지역 연극과 경기도 지역 연극에 대한 지출탄력성은 각각 1.208과 1.089로 서울(0.872)과 경상도(0.741) 지역의 지출탄력성에 비해 탄력적임
  - 즉, 공연예술분야 중 연극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충청도 지역 연극 지출이 1.208%, 경기도 지역 연극이 1.089%, 서울 지역 연극이 0.872%, 경상도 지역 연극 지출이 0.741% 증가함을 의미함
  - 공연예술분야의 성장은 서울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 매출 비중은 적으나 경기도 지역과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의 연극에 대한 성장률은 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임

##### 2) 뮤지컬 총지출과 수요 특성

-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의 뮤지컬 장르에 대한 지출탄력성이 서울, 경상도, 전라도에 비해 탄력적으로 분석됨
  - 경기도 뮤지컬의 지출탄력성은 1.644로 공연예술분야 중 뮤지컬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경기도 뮤지컬에 대한 지출이 1.644% 상승한다는 의미이며 충청도 지역의 뮤지컬 지출탄력성은 1.265, 서울 지역 뮤지컬 0.976, 경상도 지역 0.965, 전라도 뮤지컬 지출탄력성 0.958 순이었음
  - 뮤지컬 장르의 경우 뮤지컬 산업의 성장에 의해 경기도, 충청도 지역이 서울,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비해 성장률의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3) 클래식 총지출과 수요 특성

- 클래식 장르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의 지출탄력성이 1 이상으로 탄력적이었고 서울과 전라도 지역의 경우 탄력성이 1 이하로 나타남
  - 충청도 지역의 경우 지출탄력성이 1.423으로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충청도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지출이 1.423% 상승한다는 의미
  - 서울의 경우는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서울 지역 클래식에 대한 지출은 0.74% 상승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3〉 2019 3분기-2022년 3분기 총지출탄력성

장르	지역	총지출탄력성	S.E.	P-value
연극	경기도	1.089**	0.192	0.000
	경상도	0.741**	0.095	0.000
	서울	0.872**	0.033	0.000
	전라도	1.646	1.537	0.284
	충청도	1.208**	0.153	0.000
	외 지역	1.172*	0.489	0.017
뮤지컬	경기도	1.644**	0.131	0.000
	경상도	0.965**	0.112	0.000
	서울	0.976**	0.019	0.000
	전라도	0.958**	0.221	0.000
	충청도	1.265**	0.236	0.000
	외 지역	1.325**	0.180	0.000
클래식	경기도	1.066**	0.170	0.000
	경상도	1.310**	0.144	0.000
	서울	0.740**	0.072	0.000
	전라도	0.770**	0.269	0.004
	충청도	1.423**	0.257	0.000
	외 지역	1.222**	0.386	0.002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나. 공연예술분야 가격과 수요의 특성

### 1) 연극 가격과 수요 특성

- 서울 연극의 경우 자기가격탄력성이  $-0.286$ 으로 가장 비탄력적인 결과라 나왔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인 자기가격탄력성 결과를 보여줌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연예술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란 결과를 도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
  - 공연예술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적게 하락하는 특성을 지니며, 연극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의 수요가 가격 변화에 가장 둔감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타 지역의 경우에는 전라도가  $-0.988$ , 충청도가  $-0.933$  등으로 1 이하로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처럼 비탄력적이진 않음
- 경상도 지역 연극의 자기가격탄력성이  $1.356$ 으로 가격이 1% 상승할 때 연극의 수요가  $1.356\%$  상승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 2) 뮤지컬 가격과 수요 특성

- 뮤지컬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뮤지컬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경상도 지역의 뮤지컬은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가  $0.744\%$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였고, 충청도  $-0.762$ , 서울  $-0.802$ , 전라도  $-0.821$ , 경기도  $-0.964$  순이었음
  - 연극 장르의 경우는 서울 지역 수요가 가격에 상당히 둔감하였는데 뮤지컬의 경우는 타 지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둔감도를 보여주고 있음

### 3) 클래식 가격과 수요 특성

- 클래식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클래식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서울 지역의 클래식은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가  $0.307\%$  하락하며, 그 뒤로는 경기도 지역  $-0.790$ , 전라도 지역  $-0.798$ , 경상도 지역  $-0.865$ , 충청도 지

역 -0.923 순이었음

- 연극의 경우처럼 서울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수요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 관람객의 클래식 공연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3-4〉 2019 3분기-2022년 3분기 자기가격탄력성

장르	지역	가격탄력성	S.E.	P-value
연극	경기도	-0.852**	0.033	0.000
	경상도	1.356**	0.163	0.000
	서울	-0.286**	0.046	0.000
	전라도	-0.988*	0.389	0.011
	충청도	-0.933**	0.041	0.000
	외 지역	-0.909**	0.063	0.000
뮤지컬	경기도	-0.964**	0.036	0.000
	경상도	-0.744**	0.037	0.000
	서울	-0.802**	0.022	0.000
	전라도	-0.821**	0.036	0.000
	충청도	-0.762**	0.058	0.000
	외 지역	-0.919**	0.030	0.000
클래식	경기도	-0.790**	0.053	0.000
	경상도	-0.865**	0.040	0.000
	서울	-0.307**	0.073	0.000
	전라도	-0.798**	0.041	0.000
	충청도	-0.923**	0.053	0.000
	외 지역	-0.751**	0.056	0.000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다. 공연예술분야 가격과 수요의 교차적 특성

##### 1) 공연예술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적 특성

###### ① 연극

- 연극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가격과 수요의 지역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서울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 가지로 경기도의 연극수요는 서울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음
- 다시 말해 경기 지역 연극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격 정책이 타 지역 연극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임
  - 단, 서울 지역과 경상도 지역 연극의 가격과 수요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 간 연관성이 확인됨

〈표 3-5〉 연극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

수요		연극 가격				
장르	지역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연극 수요	경기도	-	-0.044	0.128	0.007	-0.006
	경상도	-0.013	-	-1.189**	-0.008	0.017
	서울	0.003	-0.091**	-	0.003	0.004
	전라도	0.108	-0.406	2.118	-	0.030
	충청도	-0.009	0.071	0.188	0.003	-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② 뮤지컬

- 뮤지컬의 경우도 더 많은 경우에서 가격과 수요의 지역간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음
  - 예를 들어, 경기도의 뮤지컬 수요는 전라도 혹은 충청도의 뮤지컬 가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흥미로운 사실은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연극에 이어 뮤지컬도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간 가격과 수요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임. 즉 경기도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정책이 서울 지역 연극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가격정책이 경기도 지역 연극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하지만 연극의 경우 서울-경상도 지역이 유일하게 지역간 가격과 수요의 연관성을 가진 반면, 뮤지컬의 경우는 서울-경상도 지역 외에 서울-전라도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역간 가격과 수요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음

〈표 3-6〉 뮤지컬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

수요		뮤지컬 가격				
장르	지역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뮤지컬 수요	경기도	-	-0.100**	-0.473**	0.019	-0.014
	경상도	-0.027	-	-0.214**	0.006	-0.010
	서울	-0.002	-0.022**	-	-0.007**	-0.001
	전라도	0.072	0.037	-0.377*	-	-0.047
	충청도	-0.023	-0.070	-0.239	-0.045	-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③ 클래식

- 클래식의 경우는 서로 가격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지역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음
  - 경기도 지역 가격이 서울 지역 클래식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 외에, 클래식 장르의 지역간 영향이 발견되지 않음
  - 마찬가지로, 지역별 클래식 장르 활성화 정책이 타 지역 클래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7〉 클래식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

수요		클래식 가격				
장르	지역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클래식 수요	경기도	-	-0.008	0.192	0.023	0.003
	경상도	-0.009	-	-0.035	-0.000	0.016
	서울	0.036*	-0.001	-	0.002	0.014
	전라도	0.077	0.004	0.032	-0.044	-0.025
	충청도	0.006	0.062	0.258	-0.051	-0.008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2)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교차적 특성

-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특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경기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뮤지컬 수요는 연극이나 클래식 공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반면, 서울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상도 지역은 연극의 경우 타 장르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았고, 전라도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
- 흥미로운 결과로는 교차가격탄력성이 음(negative)의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장르간 수요가 서로 보완재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임
- 즉 서울 지역의 연극 수요는 뮤지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게 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증가하면 연극이나 클래식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8〉 타 장르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

수요		연극 가격	뮤지컬 가격	클래식 가격
장르	지역			
연극	경기도	-	-0.199	-0.110
	경상도	-	-0.323**	-0.693**
	서울	-	-0.165**	-0.305**
	전라도	-	-1.427	-1.144
	충청도	-	-0.412**	-0.156
뮤지컬	경기도	-0.196	-	-0.042
	경상도	-0.024	-	0.146
	서울	-0.059**	-	-0.076**
	전라도	0.301	-	-0.022
	충청도	-0.211	-	0.199
클래식	경기도	-0.197	-0.253	-
	경상도	-0.128	-0.253	-
	서울	-0.515**	-0.037	-
	전라도	0.077	-0.054	-
	충청도	-0.126	-0.633**	-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2.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수요의 시기별 특성

### 가. 코로나 기간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지출 수요 특성

#### 1) 연극 지출과 수요 특성

-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2022년 9월 30일 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경우, 경기도 지역 연극에 대한 지출탄력성이 타 지역에 비해 탄력적으로 분석됨
  - 공연예술분야 중 연극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경기도 지역 연극 지출이 1.125% 증가함을 의미함
  - 충청도 지역은 0.943으로 코로나19 이전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 전체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1.208에 비해 하락하였음

#### 2) 뮤지컬 지출과 수요 특성

-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이 코로나19 이전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 전체기간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장르에 대한 수요가 총지출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지역 뮤지컬의 지출탄력성은 1.788로 공연예술분야 중 뮤지컬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경기도 뮤지컬에 대한 지출이 1.788% 상승한다는 의미이며 충청도 지역은 1.284% 상승하고 서울지역은 0.97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뮤지컬 장르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기만을 분석했을 경우 경기도 지역은 지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상도 지역 수요탄력성은 0.833으로 타지역에 비해 지출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3) 클래식 지출과 수요 특성

- 클래식 장르의 경우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지출탄력성이 1 이상으로 탄력적이었고 서울과 전라도 지역은 1 이하로 나타남

- 충청도 지역의 경우 총지출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율이 1.570으로 코로나19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의 1.423보다 더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됨
- 서울과 전라도의 경우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각각 0.755%, 0.8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 지역에 비해 총지출 증가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둔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9〉 코로나19 이후 총지출탄력성

장르	지역	총지출탄력성	S.E.	P-value
연극	경기도	1.125**	0.223	0.000
	경상도	0.659**	0.119	0.000
	서울	0.871**	0.041	0.000
	전라도	1.593	1.802	0.377
	충청도	0.943**	0.168	0.000
	외 지역	1.136	0.651	0.081
뮤지컬	경기도	1.788**	0.149	0.000
	경상도	0.883**	0.134	0.000
	서울	0.975**	0.020	0.000
	전라도	0.985**	0.273	0.000
	충청도	1.284**	0.283	0.000
	외 지역	1.566**	0.435	0.000
클래식	경기도	1.223**	0.191	0.000
	경상도	1.470**	0.160	0.000
	서울	0.755**	0.082	0.000
	전라도	0.833*	0.324	0.010
	충청도	1.570**	0.307	0.000
	외 지역	1.155*	0.481	0.016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나. 코로나 기간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가격 수요 특성

### 1) 연극 가격과 수요 특성

- 서울 연극의 경우 자기가격탄력성이 -0.259로 가장 비탄력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 결과를 보여줌

- 코로나19 이후부터 2022년 3분기 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경우 공연예술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되어 공연예술분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
- 서울 지역의 경우 연극의 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연극에 대한 수요가 0.259%만 감소하여 가장 가격에 둔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는 서울 지역 연극 관객의 충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2) 뮤지컬 가격과 수요 특성

- 뮤지컬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뮤지컬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경상도 지역 뮤지컬의 경우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는 0.743%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로는 충청도 지역이 0.77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기 지역 뮤지컬의 경우는 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1.002로 단위탄력적 특성을 보이며, 비탄력적 특성을 보인 타 지역에 비해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

## 3) 클래식 가격과 수요 특성

- 클래식의 경우 가격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서 클래식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분석됨
  - 서울 지역의 클래식 수요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0.34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보다 조금 더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수요가 가격에 상당히 둔감하여, 서울 지역 클래식 공연 가격의 상승이 이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0〉 코로나19 이후 자기가격탄력성

장르	지역	가격탄력성	S.E.	P-value
연극	경기도	-0.853**	0.036	0.000
	경상도	1.551**	0.204	0.000
	서울	-0.259**	0.064	0.000
	전라도	-0.929*	0.415	0.025
	충청도	-0.926**	0.041	0.000
	외 지역	-0.885**	0.078	0.000
뮤지컬	경기도	-1.002**	0.038	0.000
	경상도	-0.743**	0.040	0.000
	서울	-0.824**	0.026	0.000
	전라도	-0.824**	0.041	0.000
	충청도	-0.779**	0.065	0.000
	외 지역	-0.892**	0.069	0.000
클래식	경기도	-0.807**	0.055	0.000
	경상도	-0.881**	0.042	0.000
	서울	-0.345**	0.084	0.000
	전라도	-0.795**	0.047	0.000
	충청도	-0.928**	0.059	0.000
	외 지역	-0.744**	0.068	0.000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지출 수요 특성

##### 1) 연극 지출의 수요 특성

-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6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연극의 경우 충청도 지역의 총지출탄력성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 이상으로 총지출에 탄력적으로 반응함
  - 충청도 지역의 경우, 공연예술분야 중 연극에 대한 총 지출이 1% 상승할 때 이 지역 연극 지출이 3.804% 증가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가용 가능한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1.208% 상승보다 높은 결과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며, 연극 장르에 대한 회복속도가 충청지역에서 빠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함

- 대부분 지역에서 총지출에 대한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연극 관람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2) 뮤지컬 지출의 수요 특성

- 뮤지컬의 경우 경상도 지역 총지출탄력성이 1.154로 총지출 증가에 대해 수요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
  - 뮤지컬의 경우는 데이터 전체 기간 대비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기간 총지출에 대한 수요가 연극의 경우처럼 증가하지는 않았음
  - 소극장 위주인 연극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에 의해 공연 자체가 어려웠던 것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극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이 지속된 뮤지컬 공연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3) 클래식 지출의 수요 특성

- 클래식의 경우 서울 지역의 총지출탄력성이 1.263으로 총지출 증가에 대해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
  - 클래식에 대한 전체 지출이 1% 상승할 경우 서울 지역 클래식에 대한 지출은 1.26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경우의 0.740% 상승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연예술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총지출탄력성의 증가는 클래식 장르 전체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3-11〉 거리두기 해제 이후 총지출탄력성

장르	지역	총지출탄력성	S.E.	P-value
연극	경기도	1.254*	0.536	0.019
	경상도	1.620**	0.230	0.000
	서울	1.083**	0.122	0.000
	전라도	1.466	4.358	0.736
	충청도	3.804**	0.524	0.000
	외 지역	-0.807	1.580	0.610

장르	지역	총지출탄력성	S.E.	P-value
뮤지컬	경기도	1.029**	0.294	0.000
	경상도	1.154**	0.246	0.000
	서울	0.912**	0.085	0.000
	전라도	-0.008	0.654	0.990
	충청도	0.369	0.339	0.276
	외 지역	6.412**	1.318	0.000
클래식	경기도	1.017*	0.496	0.041
	경상도	-0.139	0.369	0.706
	서울	1.263**	0.312	0.000
	전라도	0.461	1.353	0.733
	충청도	0.745	0.824	0.366
	외 지역	7.082**	1.490	0.000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가격 수요 특성

### 1) 연극 가격의 수요 특성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든 지역에서 연극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양수(positive number)로 일반적 재화가 가지는 특성인 음(negative)의 결과를 보이지 않음
  - 충청도 지역에서는 연극 공연 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공연 수요가 2.05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 결과인 0.933% 감소한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임
  - 이러한 결과는 충청도 지역 2022년 공연 티켓판매수가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실, 즉 공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과 이 지역 티켓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올랐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지역 공연에 대한 보복적 소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2) 뮤지컬 가격의 수요 특성

- 뮤지컬의 경우도 연극과 마찬가지로 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도 대체적으로 뮤지컬 공연이 이어져 온 서울지

- 역의 경우는 자기가격탄력성이 -0.540으로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됨
- 서울 지역 뮤지컬 공연 수요의 가격탄력성 -0.540은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 -0.802보다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결과를 보임
  - 즉, 서울 지역에서도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뮤지컬 공연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수요 특성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가 보복적 소비 증가에 의한 일시적 영향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변화인지는 향후 추가적 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3) 클래식 가격의 수요 특성

- 클래식의 경우도 앞의 연극과 뮤지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경기도(-0.409), 전라도(-0.733)는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됨
  - 앞의 뮤지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 모두 데이터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가격탄력성보다 비탄력적으로 도출됨
  - 클래식의 경우 역시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이 수요 특성에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은 연극과 뮤지컬 장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양(positive)의 결과로 도출되었음

〈표 3-12〉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기가격탄력성

장르	지역	가격탄력성	S.E.	P-value
연극	경기도	0.508**	0.187	0.007
	경상도	1.405**	0.131	0.000
	서울	0.192	0.112	0.086
	전라도	3.453	2.819	0.221
	충청도	2.054**	0.288	0.000
	외 지역	-0.494**	0.133	0.000
뮤지컬	경기도	-0.129	0.182	0.476
	경상도	0.226*	0.088	0.011
	서울	-0.540**	0.094	0.000
	전라도	0.349	0.199	0.080

장르	지역	가격탄력성	S.E.	P-value
	충청도	0.350**	0.114	0.002
	외 지역	-2.413**	0.557	0.000
클래식	경기도	-0.409**	0.077	0.000
	경상도	0.706**	0.128	0.000
	서울	-0.069	0.153	0.654
	전라도	-0.773**	0.110	0.000
	충청도	0.258*	0.135	0.056
	외 지역	-0.638**	0.093	0.000

주: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제4절 소결

- 본 장에서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준이상수요체계 모형(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 AIDS Model)으로 코로나19가 공연예술 분야 수요에 미친 영향의 장르별·지역별 측정을 시도함
  - AIDS 모형을 통한 분석은 가격과 수요의 관계를 공연예술 전체 시장의 장르별·지역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일반균형모형분석으로 단순히 하나의 특정 장르만을 분석하여 그 수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 전체 시장에서 각 장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더 정교한 수요 특성 분석이 가능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가용 전체 기간(2019년 3분기~2022년 3분기)데이터를 장르별·지역별로 재가공하고, 이를 다시 주(weekly)단위로 합산하여 분석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체 기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연예술분야 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체로 둔감하게 반응하며 장르별·지역별 수요는 서로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공연예술분야 수요는 지역별·장르별로 대부분 자기가격탄력성이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가격이 낮을수록 공연 수요가 높아진다는 의미임
  - 또한, 대부분 자기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의 수요가 가격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지역별·장르별 교차탄력성은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는 많은 경우 장르별·지역별 공연이 서로 대체재 혹은 보완재<sup>1)</sup>가

1) 대체재는 사과나 감처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과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감의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경기도 연극 공연의 수요는 서울 연극 공연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상도 뮤지컬 공연의 수요는 연극이나 클래식 등 타 장르 공연 가격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임

■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도 전체 기간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요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였음

- 연극의 경우는 서울 지역의 수요가 가격에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는 서울 지역 연극 관객의 충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뮤지컬의 경우는 경상도 지역의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변화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클래식 공연의 경우 서울 지역의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변화에 둔감하였음
- 코로나 19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보다 서울 지역의 클래식 공연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수요가 가격에 상당히 둔감하여, 서울 지역 클래식 공연 가격의 상승이 이 지역의 클래식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6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장르별 수요 특성이 혼조양상을 보임

-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우 연극, 뮤지컬, 클래식 장르에서의 수요가 가격에 오름에 따라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이 수요 특성에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충청도 지역에서는 연극 공연 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공연 수요가 2.05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체 기간을 분석했을 때 결과인 0.933% 감소한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임
-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도 다수의 뮤지컬 공연이 이어져 온 서울지역의 경우는 자기가격탄력성이 -0.540으로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되었음
- 데이터 전체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0.802보다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게 변한 결

---

수요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고, 보완재는 테니스 라켓과 테니스 공처럼 두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를 말함

과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도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특성의 변화가 감지되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변화의 크기나 방향성이 상이하였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와 AIDS 모형을 통해 공연예술의 수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장르별로, 시기별로 수요 특성이 상이하였음
  - 다만, 공연법 개정으로 인해 전산 발권된 공연예술 티켓 판매 데이터가 의무적으로 수집되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가 함유하는 정보의 양은 상당하나 공연법 개정 이후인 2019년 3분기 이후부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가 포함하는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권임
  - 따라서 거리두기 등 정책적 공급·수요의 제한 요인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효과 등을 제외한 공연예술 수요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4장

결론



## 제1절 결과 요약

---

- 본 연구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공연 예매·결제 데이터를 통해 준이상수요체계 모형(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 AIDS Model)의 변이모형인 원산지별 준이상수요체계 모형(Source-differenti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공연예술 분야 수요 특성의 장르별·지역별 추정을 시도함
  -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의 변이모형인 SDAIDS 모형은 같은 공연 장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별·장르별 공연예술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준이상수요체계모형을 통해 지출탄력성 (expenditure elasticity of demand), 자기가격탄력성 (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교차탄력성 (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을 계산하여 공연예술의 수요특성을 분석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체 기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연예술분야 수요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교차탄력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르별·지역별 수요는 대체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공연예술분야 수요는 지역별·장르별로 대부분 자기가격탄력성이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가격이 낮을수록 공연 수요가 높아진다는 의미임
  - 대부분 자기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의 수요가 가격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공연예술분야 지출탄력성은 지역별·장르별로 조금씩 상이한 특성을 보였으나, 공연에 대한 총지출 증가에 대해 모든 지역별·장르별 공연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즉,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장르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도 공연예술 전체 산업이 성장할 때 퇴행하는 경우가 없다는 의미임
  - 지역별·장르별 교차탄력성은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 예를 들어, 서울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연극수요는 서울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음
  - 다시 말해 경기 지역 연극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격 정책이 타 지역 연극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임
- 하지만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특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뮤지컬 수요는 연극이나 클래식 공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서울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흥미로운 결과로는 교차가격탄력성이 음(negative)의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장르간 수요가 서로 보완재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임
    - 즉 서울 지역의 연극 수요는 뮤지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게 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증가하면 연극이나 클래식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도 전체 기간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요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였음
    - 전체 기간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여 분석한 경우 지출탄력성이나 가격탄력성에 유의미한 변화나 방향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음
    - 지출탄력성은 장르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반응하며 전체 기간을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기간만을 분석했을 때에도 양(positive)의 탄력성 결과를 보여 전체 공연예술산업이 성장할 때 연극, 뮤지컬, 클래식 장르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성장함을 보여줌
  -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6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장르별 수요 특성이 혼조양상을 보임
    -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도 다수의 뮤지컬 공연이 이어져 온 서울지역의 경우는 자기가격탄력성이  $-0.540$ 으로 음(negative)의 결과가 도출되었음

- 데이터 전체기간을 분석했을 때의 -0.802보다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게 변한 결과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보복적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특성의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함

〈표 4-1〉 주요 결과 및 의미

주요 결과	의미와 해석
공연예술관람은 음(negative)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가짐	- 공연예술관람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가격 할인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음
공연예술관람은 대체적으로 가격변화에 수요의 변화가 비탄력적임	- 공연예술관람 수요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가격 할인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공연예술관람 수요의 총지출탄력성이 양(positive)의 결과를 가짐	- 공연에 대한 총지출 증가에 대해 모든 지역별·장르별 공연 수요가 증가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장르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도 공연예술 전체 산업이 성장할 때 퇴행하지 않음을 의미함
공연예술 수요의 타 지역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공연예술관람 수요는 대체로 지역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서울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연극수요는 서울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음 - 경기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지원정책이 타 지역 연극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지역별로 통계적 유의성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임	- 공연예술관람 수요는 경우에 따라 다른 장르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경기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공연예술 수요의 타 장르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음(negative)의 결과를 가짐	- 장르간 수요 특성이 서로 보완재의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임 - 즉 서울지역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증가하면 연극이나 클래식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 지원 정책은 뮤지컬이나 클래식 장르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음

##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 공연예술 관람 수요는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통해 일반균형모형인 준이상수요체계 모형 분석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후천적으로 형성되며,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소비를 하게 된다는 이론, 즉 문화예술 상품의 소비가 소비자본에 크게 의존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
  - 소비자본은 인적자본의 한 형태로 공연예술 관람을 통해 지식 혹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소비자본으로 인해 공연예술 관람을 더 증가시킨다는 이론으로 공연예술 소비는 다른 제품 소비에 비해 가격에 영향을 덜 받음 (이은우 2016, 성제환 2012)
  - 따라서,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구상할 때, 가격 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임
  - 본 연구의 자기가격탄력성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연극 장르의 경우 타 지역보다 가격에 더욱 둔감하고, 전라도 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덜 둔감함
  - 즉 정책을 구상할 때에는 지역별·장르별 수요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이 필요함
-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공연예술 총지출 변화에 장르별·지역별로 상이함
  - 연극의 경우는 충청도 지역의 지출탄력성이 1.208로 서울의 지출탄력성 0.872에 비하여 더 큰데, 이는 전체 연극에 대한 총지출이 1% 증가할 때 충청도 지역에서 연극에 대한 지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증가한다는 의미임
  - 이렇게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전체 공연예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성장률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정책 또한 이러한 수요 특성에 맞추어 공연별 및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 대부분의 경우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타 지역 공연예술 관람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서울의 연극 수요는 경기도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연극수요는 서울의 연극 가격 변동과 관련이 없음
- 다시 말해 경기 지역 연극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격 정책이 타 지역 연극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임

■ 특정 지역 특정 공연예술 관람의 수요는 다른 공연장르 관람 가격 변화에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뮤지컬 수요는 연극이나 클래식 공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서울 지역 공연예술 수요는 타 장르 가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흥미로운 결과로는 교차가격탄력성이 음(negative)의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장르간 수요가 서로 보완재 관계를 보인다는 의미임
- 즉 서울 지역의 연극 수요는 뮤지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게 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증가하면 연극이나 클래식의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 정책적 효과로 인해 연극 수요 증대 효과 뿐 만 아니라 뮤지컬과 클래식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임

■ 공연법 개정으로 인해 전산 발권된 공연예술 티켓 판매 데이터가 의무적으로 수집되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가 함유하는 정보의 양은 상당하나 공연법 개정 이후인 2019년 3분기 이후부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가 포함하는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요의 특성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거리두기 등 정책적 공급수요의 제한 요인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효과 등을 제외한 공연예술 수요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 시계열 데이터가 더 확보된 후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일반균형모형인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을 통한 수요 특성 분석은 시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장르별·지역별 수요와 가격의 서로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여 분

석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에 더 가까운 분석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특성상 지역이나 장르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 또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이렇게 주요 장르를 위주로 분석하고 나머지 장르는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 다시 말해 시·군·구 단위 분석이나 세부 장르별 분석이 필요할 경우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수요 특성 분석은 불가하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함

---

##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13). 5개 공연장의 대관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86094>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11.17).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81>
-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2022. 2. 24). 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 (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https://www.kphn.org/bbs/board.php?bo\\_table=empowerment&wr\\_id=32](https://www.kphn.org/bbs/board.php?bo_table=empowerment&wr_id=3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2. 25). 5개 국립공연장 휴관·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95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11. 1).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35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8. 6).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58&page=1#](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58&page=1#)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 20).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용자 등 지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837](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837)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12. 29). 2019 공연예술조사 주요 결과 (요약).
- 문화체육관광부. (2021.8.31).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42&pDataCD=0417000000](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42&pDataCD=0417000000)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12. 29). 2020 공연예술조사 주요 결과 (요약).
- 문화체육관광부. (2022. 5. 9). 공연예술단체 1,800여 개 대상 공연장 대관료 지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9488&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pCurrentPage=1](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9488&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pCurrentPage=1)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11.18), 2021 공연예술조사 주요 결과(요약).
- 채수정, 조남규 (2022).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국내 공연예술 시장에 미친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9(2), 97-111.
- 배해령, 신종철. (2021). 코로나19에 의한 뮤지컬 공연현황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9), 372-390.
- 보건복지부. (2021.6.20).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5](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5)
- 보건복지부. (2021.10.15).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72#](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72#)
- 보건복지부. (2020. 8. 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0&CONT\\_SEQ=359039&SEARCHKEY=CONTENT](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0&CONT_SEQ=359039&SEARCHKEY=CONTENT)
- 서울시 관악구. (2021. 6. 2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7월 1일부터 시행). 해피매거진.
- 서울연구원.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정책리포트 제307호.
- 성제환. (2003). 文化·藝術商品 消費決定要因에 관한 經濟學的 研究-文化·藝術商品의 體驗財의 特性이 消費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10(1), 87-113.
- 양혜원, 김면, 차민경, 김현경, 노수경.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2020. 12. 30.
- 이수영. (2021). 「코로나19로 본 공연예술계 충격과 그 대응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9. (3). 453-463.
- 이은우. (2016). 문화예술 상품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문화산업연구, 16(2), 69-78.
- 이진면, 최용재. (2011). 가계의 문화서비스수요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4(1), 203-217.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코로나18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 2020. 2. 24.

- 질병관리청. (2022). 주간 건강과 질병, 15(4), 2022. 1. 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코로나19의 문화·관광·콘텐츠 영향, 11월호, 2022. 12. 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2020 문예연감.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2022. 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2021. 4.
- Baumol, W. J., and Bowen, W. G. (1965). On the performing arts: The anatomy of their economic problem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5, 495-502.
- Deaton, A., & Muellbauer, J. (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0(3), 312-326.
- Lee, D. H., and Lee, D. H. (2012). Increase in telecommunications expenditure and the migration of consumption online: The case of South Korea. *The Information Society*, 28(2), 61-82.
- Montgomery, S. S., and Robinson, M. D. (2006). Take me out to the opera: Are sports and arts complements? Evidence from the performing arts research coalition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8(2), 24-79.
- Pawlowski, T., and Breuer, C. (2012). Expenditure elasticities of the demand for leisure services. *Applied Economics*, 44(26), 3461-3477.
- Prieto-Rodriguez, J., Romero-Jordan, D., and Sanz-Sanz, J. F. (2005). Is a tax cut on cultural goods consumption actually desirable?: A microsimulation analysis applied to Spain. *Fiscal Studies*, 26(4), 549-575.
- Ringstad, V., and Løyland, K. (2011). Performing arts and cinema demand: Some evidence of Linder's disease. *Applied Economics Quarterly*, 57(4), 255-284.
- Werck, K., and Heyndels, B. (2007). Programmatic choices and the demand for theatre: The case of Flemish theatr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1(1), 25-41.
- Wu, J., Jiang K., and Yuan C. (2018). Determinants of demand for traditional Chinese opera. *Empirical Economics*, 57, 2129-2148.
- Yang, S. R., & Koo, W. W. (1994). Japanese meat import demand estimation with the source differentiated AIDS model.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396-408.

- Yoon, S., and Heo, S. (2017). The demand for cultural services in KOREA using the QUAID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ety*, 18(1), 95-112.
- Zieba, M. (2009). Full-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German public theatr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3(2), 85-108.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이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1장, 제2장 3절, 제3장, 제4장, 연구총괄

### 연구진

김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제2장 1절, 제4장

윤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3장 1절, 제4장

정인혜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제2장 2절, 제4장

이다운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임: 제2장 2절, 제4장

## 코로나19 전후 공연시장 변화 비교 분석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월 일

발행일 2022년 월 일

인쇄인 더크리P&B(주)

I S B N

DOI